

『金匱要略·瘧證脈證并治第四』에 對한 研究

고승욱·이윤천·서대선·김명수·정현영*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Intermittent Fever' in Keumkyueyorak

Seung-Wook Go·Yoon-Cheon Lee·Dae-sun Seo·Myung Soo Kim·Hun-Young Jung

Dep.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f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This chapter divides Intermittent Fever into four types like Pyrexial Malaria·Cold Malaria·Intermittent high fever·Prolonged Malaria according to quantity of chillness and fever. Pyrexial Malaria makes fever more than chillness, Cold Malaria makes fever more than chillness, Intermittent high fever makes fever only, Prolonged Malaria makes a lump in ribs by chronic Intermittent Fever. Pyrexial Malaria is treated by using White Tiger Decoction with Atractylodes. Cold Malaria is treated by using Dichroae Radix medicinal powder, if it has slight fever, treated by Decoction of Bupleurum, Cinnamon and Ginger, if it has exterior pathogen, treated by Oyster Shell Decoction. Intermittent high fever is treated by using White Tiger Decoction with Ginseng and Bamboo Leaf and Gypsum Decoction. Prolonged Malaria is treated by using Decoction of Turtle Shell Pill. In case of thirsty caused by fever, treated by using Decoction of Bupleurum without Pinellia Tuber, with Trichosanthes Fruit.

When we are caught by Intermittent Fever, we must keep away from eating heartily, hot foods, pork and beef, drinking and sexual life. These make disease deeper. Hot foods can make a lump on body, because they disturb digestion.

key words : Intermittent Fever, Pyrexial Malaria, Keumkyueyorak

I. 序 論

『瘧病脈證并治第四』는 瘧疾의 脈證과 治療를 專的으로 논하였다. '瘧'을 『說文解字』¹⁾에 "寒熱休作病"이라 하였고, 李廷이 『金匱要略廣注』에 "瘧은

* 교신저자 : 정현영,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번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jikjae@wonkwang.ac.kr, Tel : 063-850-6808

1) 許慎 注, 段玉裁 撰: 說文解字, 大星文化社, 서울, 1992.

虐의 뜻이다. 寒熱邪가 侵入한 뒤에 그 症狀이 매우 고통스럽기(暴虐) 때문에 瘧이라 한다.”²⁾고 하였으니 瘧疾은 瘧邪를 받아서 寒熱往來·戰寒壯熱이 週期的으로 발작하는 것이 주된 증상이 되는 질병으로서 發作時 매우 심한 苦痛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疾病의 증상은 얼룩날개모기(Anopheles mosquito)가 물어서 전파하는³⁾ 말라리아(malaria)와 유사하다.⁴⁾

『黃帝內經』의 여러 곳에 瘧疾의 명칭이 散在하고 있으나, 『素問·瘧論』과 『素問·刺瘧論』에 瘧疾을 전적으로 논술하고 있으니, 그 內容을 要約하면 瘧疾의 原因은 風邪로 인한 것이며⁵⁾, 病機는 風邪로 인하여 陰陽의 偏盛·偏衰가 일어나 발생⁶⁾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分類에 있어서 發作하는 時日에 따라서 單日瘧·間日瘧·三日瘧으로, 症候에 따라서 溫瘧·寒瘧·瘧瘧으로, 六經에 따라서 足太陽瘧·足少陽瘧·足陽明瘧·足太陰瘧·足少陰瘧·足厥陰瘧으로, 五藏에 따라서 肺瘧·心瘧·肝瘧·脾瘧·腎瘧으로 구분하여 刺鍼法을 설명하였으나, 구체적인 治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립보건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1985년 이후 말라리아 환자가 없었으나 1990년 전국에 6명의 환자가 발생한 뒤로, 1998년에는 전국에 3,932명이 발생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감염원인은 군복무가 36%, 유행지 거주가 35%, 여행력이 16%, 기타 11%, 재발이 2%로 분석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인천·경기도·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며 이 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⁷⁾ 한반도에서 말라리아 발병률이 가장 높

은 지역은 비무장지대인데, 비무장지대가 말라리아의 온상이 된 원인에 대하여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1999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회의를 주선하였으나 북한의 불참으로 공동 방제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또한 막대한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병원체의 약물내성과 매개체의 살충제내성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⁸⁾

瘧疾은 말라리아를 비롯하여 寒熱往來·戰寒壯熱이 週期的으로 發作하는 모든 질환을 포괄되며 瘧疾의 治療方法은 말라리아의 치료에 응용되어 왔다.

이에 瘧疾을 惡寒發熱의 多少에 근거하여 瘧瘧·溫瘧·牝瘧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누었고 또한 瘧病이 오랜 時日 동안 낫지 않으면 瘧母를 형성할 수 있으며, 치료에 있어서 脈象에 근거하여 汗·下·吐·溫·清·鍼灸·飲食調理 등 여러 가지 處方과 治療方法을 제시하고 있는 『金匱要略·瘧病脈證并治第四』를 校勘과 諸家의 註釋을 考察함으로써 原文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시된 처방들이 현재 臨床에서의 活用을 살펴보고, 또한 後世의 瘧疾治療에 대한 研究도 살펴봄으로써 瘧疾의 治療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본 논문은 原文의 懸吐, 校勘, 註釋, 國譯, 考察, 總括 및 結論의 순서로 연구하였다.

1. 原文은 내용에 따라 5節로 나누고 節名을 달았다.
2. 原文은 宋洞部郎中 林億 등이 校正하고 趙開美 校刊으로 刊行된 『金匱要略方論』⁹⁾을

2) 李昉: 瘧者是 虐也라 寒熱侵入하여 暴虐至甚 故로 名瘧이라

3) E. Braunwald 외: Harison's 내과학, 대한내과학회 해리슨내과학 편집위원회, 도서출판MIP, 서울, 2003, p. 1237.

4) 鄭東洙: 素問·瘧論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1994, p. 1.

5) 『素問·瘧論』: 夫瘧瘧者是 皆生於風이라

6) 『素問·瘧論』: 陰陽上下交爭하여 虛實更作하여 陰陽相移也라

7) <http://dis.mohow.go.kr>

8) 上揭書 p. 1237.

9) 張仲景 著,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金匱要略方論, 裕

底本으로 하였으며, 작은 글자로 된 文章도 모두 收容하였다.

3. 懸吐는 蔡¹⁰⁾의 『金匱要略精解』를 참조하였다.
4. 校勘한 文獻과 略稱은 【표 1】과 같다.
5. 본 論文에 引用한 註釋書는 【표 2】와 같으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註釋의 原文에 懸吐를 하여 脚註로 하였다.

【표 1】校勘한 文獻과 略稱

	書名	編著者	略稱
1	脈經	王叔和	脈經
2	千金要方	孫思邈	千金
3	外臺秘要	王焘	外臺
4	古今醫統正脈全書	王肯堂	醫統
5	金匱要略心典	尤怡	尤本
6	金匱方衍義	趙以德	趙本
7	金匱要略	李克光	李本
8	三因極一病證方論	陳無擇	三因方

【표 2】選註書目

	書名	著者	備考
1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村	
2	金匱要略心典	尤怡	
3	醫宗金鑑·金匱要略注	吳謙	
4	金匱要略淺注	陳念祖	
5	金匱要略廣注	李廷	
6	金匱要略淺注補正	唐宗海	
7	金匱要略發微	曹家達	
8	張氏醫通	張璐	
9	金匱要略直解	程林	陳紀藩의 『金匱要略』에서 再引用

III. 研究內容

第 1 節 脈象에 따른 瘧疾의 病機와 治法

【原文】

昌德書局, 臺北, 1960.

- 10)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大邱, 1982.

師曰 瘧脈自弦¹¹⁾이라 弦數¹²⁾者는 多熱¹³⁾이오 弦遲¹⁴⁾者는 多寒¹⁵⁾이오 弦小¹⁶⁾緊¹⁷⁾者는 下之差¹⁸⁾라 弦遲者는 可溫之¹⁹⁾오 弦緊者는 可發汗鍼灸也²⁰⁾며 浮²¹⁾大者는 可吐之²²⁾오 弦數者는 風發²³⁾也²⁴⁾니 以飲食消息止之²⁵⁾라

【校勘】

- 1) 師曰 瘧脈自弦: 『脈經·卷八 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에는 “夫瘧脈自弦”으로 되어 있다.
- 2) 下之差: 『脈經·卷八 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에는 “可下之”로 되어 있다.
- 3) 可溫之: 『脈經·卷八 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에는 “可溫藥”으로, 『外臺·卷五』에는 “溫藥愈”로 되어 있다.
- 4) 可發汗鍼灸也: 『脈經·卷八 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에는 “可發汗鍼灸之”로 되어 있다.
- 5) 弦數者 風發也: 『外臺·卷五』에는 “脈弦數者 風疾也”로 되어 있다.
- 6) 以飲食消息止之: 『外臺·卷五』에는 “以飲食消息之”로 되어 있다.

【註釋】

- (1) 弦: 弦脈. 體狀이 바르고 곧으면서 長하여 絃樂器의 줄을 누르는 것 같은 脈.¹¹⁾
- (2) 數: 數脈. 正常 成人의 경우 醫師의 1呼吸에 患者의 脈이 6회 이상 搏動하는 脈.¹²⁾
- (3) 多熱(다열): 瘧疾의 症狀이 發熱이 많은 것.
- (4) 遲: 遲脈. 醫師의 1呼吸에 患者의 脈이 3번 搏動하는 脈.¹³⁾
- (5) 多寒(다한): 瘧疾의 症狀이 惡寒이 많은 것.
- (6) 小: 細脈의 別稱. 脈의 가늘기가 실과 같으나 손가락에 感應되는 것이 분명한 脈.¹⁴⁾

11)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p. 99.

12) 上揭書 p. 99.

13) 上揭書 p. 101.

- (7) 緊: 緊脈. 脈의 넓이, 길이, 浮沈에 관계 없이 줄을 잡아당기거나 세끼줄을 돌리는 것처럼 손가락을 치는 것.¹⁵⁾
- (8) 浮: 浮脈. 가볍게 누르면 脈象이 잡히고, 무겁게 누르면 힘이 조금 減少되나 속은 비지 않으며, 손가락을 들면 손가락에 가득 차며 힘이 있는 脈.¹⁶⁾
- (9) 風發(풍발): 風은 邪氣를 가리키니, 風發은 風邪를 感觸하여 일어나는 發熱이다.¹⁷⁾
- (10) 以飲食消息止之(이음식소식지): 適當한 飲食調理를 가리킨다.¹⁸⁾

【國譯】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瘧疾의 主脈은 弦脈이다. 弦數한 것은 發熱이 많고, 弦遲한 것은 惡寒이 많으며, 弦小緊한 것은 瀉下하여야 나고, 弦遲한 것은 溫法을 써야 하고, 弦緊한 것은 發汗과 鍼灸를 써야 하고, 浮大한 것은 吐法을 써야 하고, 弦數한 것은 風이 發生되니 飲食으로 調理만 할 뿐이다.

【考察】

本文은 脈象에 따라 瘧病의 病機와 治療原則을 論述하였다.

瘧疾이 弦脈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陳念祖가 “瘧疾은 寒熱往來가 一定한 證候이다. 비록 三陽과 三陰의 差異가 있으나 그 邪氣가 머무르는 것이 모두 半表半裏의 사이에 벗어나지 않고 少陽이 半表半裏를 主宰하기 때문에 그 脈은 반드시 弦하다.”¹⁹⁾한 것처럼 모든 註釋家들은 瘧疾이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고 半表半裏는 少陽이 주재하기 때문에 少陽의 脈인 弦脈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瘧疾이 半表半裏에 있는 까닭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李炘이 “弦은 風病의 脈이며 또한 肝脈에 屬하니 風氣가 肝에 通하고 瘧疾이 風邪로 發生하기 때문이다. 또한 傷寒의 少陽病에 弦脈이 나타나며 瘧疾은 寒熱往來하고 口渴作嘔하여서 매우 少陽症과 類似하므로 그 脈이 또한 弦하다.”²⁰⁾한 것과 같이 瘧疾의 病因이 風이며, 風은 肝木에 속하여 少陽의 木氣이기 때문에 少陽의 半表半裏에 있고, 또한 傷寒의 少陽經病과 瘧疾의 症狀이 매우 類似하기 때문에 보았다. 둘째, 曹家達은 “瘧疾이 少陽에 屬하는 것은 곧 手少陽三焦의 病이며 寒水가 皮毛에 散布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緣由를 窮究하건대 몇 가지 原因이 있으니 사람이 더위를 만나 조용하고 높은 집에 오래 머물러 바람을 쏘이지 않으면 땀이 적어서 水氣가 皮毛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으니 秋風이 일어나면 皮毛가 收縮하여 汗液이 이에 肌肉과 腠理에 엉기니 이것이 한 가지 原因이다. 勞役한 사람이 더워서 땀에 젖어 몸 안에 陽氣가 갑자기 퍼지고 煩熱을 이기지 못하여 낮에는 차가운 물에 목욕을 하고 밤에는 차면서 바람과 이슬에 맞으면 아직 가을의 시원한 氣運이 오지 않았지만 皮毛가 먼저 막혀서 水氣가 肌肉과 腠理에 머물러 달라붙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이것이 두 번째 原因이다. 또 或 가을에 조금 더위로 고생하여 갑자기 새벽의 차가운 기운을 쏘여서 皮毛가 일단 막히면 水氣가 運行되지 않으니 이것이 셋째 原因이다. 세 가지 原因이 비록 輕重의 區別이 있으나 皮毛의 안쪽 膈膜의 바깥에 水氣가 머무르게 되므로 그 脈이 모두 弦하다. 痰飲의 脈이 반드시 弦한 것은 水氣가

半表半裏하니 其脈必弦이라

20) 李炘: 弦爲風脈하고 亦屬肝脈하니 以風氣通于肝而瘧生于風也라 又傷寒少陽病에 見弦脈하며 瘧疾은 寒熱往來하고 口渴作嘔하여 多似少陽症 故로 其脈亦弦이라

14) 上揭書 p. 100.

15) 上揭書 p. 99.

16) 上揭書 p. 98.

17) 李炘光: 風은 泛指邪氣니 風發은 指感受風邪而發熱이라

18) 陳紀藩: 指適當亦飲食調理라

19) 陳念祖: 瘧者는 寒熱往來之有定候也라 雖有三陽三陰之異나 而其舍總不外乎半表半裏之間하고 少陽主乎

있기 때문이다.”²¹⁾고 하여 水氣가 運行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비록 以上の 두 가지 견해가 있으나 瘧疾은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기 때문에 少陽의 弦脈이 나타나는 것으로 總結할 수 있다.

말라리아의 발병기전은 사람의 감염은 암컷 열록 날개모기가 흡혈할 때 모기의 침샘에 있던 열원충의 포자소체(sporozoite)가 몸으로 들어와 시작된다. 이들은 혈류를 타고 재빨리 간실질세포 안으로 들어가 무성생식기(period of asexual reproduction)를 시작한다. 간내(intrahepatic) 또는 전적혈구(pre-erythrocytic) 분열생식(schizogony 또는 merogony)이라고 부르는 증식 과정을 통해 한 개의 포자소체는 10,000개에서 30,000개 이상의 분열소체(merozoites)를 자손으로 만들게 된다. 팽창된 간세포는 결국에는 터져, 운동성이 있는 분열소체를 혈류로 내보내게 된다. 이때부터 감염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열원충은 48시간 주기인 적혈구내 생활사가 끝날 때까지 거의 모든 혈액소를 소모하며, 적혈구 용적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의 크기로 자란다. 여러 번의 핵분열이 일어나고 적혈구가 터지면서 6개에서 30개의 분열소체를 내놓는다. 분열소체 각각은 새로운 적혈구에 들어가 이 같은 생활사를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무성생식기 열원충이 적혈구를 침입하고 파괴하는 직접적인 영향과 이에 대한 숙주의 반응이 말라리아가 생기는 원인²²⁾이 되는 것을 보면 말라리아의 病

巢는 肝이며 肝의 本脈은 弦脈이니 瘧疾에 弦脈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尤怡가 “瘧疾의 邪氣는 진실로 半表半裏의 사이에 있으나 사람의 五藏에 치우치게 많은 것도 있고 치우치게 적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그 病이 熱이 많은 사람도 있고 寒이 많은 사람도 있으며 裏證이 많아 下法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表證이 많아 汗法을 쓸 수 있고 吐法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脈에 따라 施治하여야 마땅하다.”²³⁾고 하였듯이 瘧疾의 脈은 弦脈이지만 다른 脈象을 兼하여 나타난다. 이와 같이 다른 脈이 兼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 弦數脈인 경우에 熱로 인한 것이 많은(弦數者多熱) 것에 대하여 魏荔澗은 “弦數한 것은 熱로 內傷한 것이 많으니 熱에 傷하면 陰虛하므로 發熱이 많다.”²⁴⁾고 하여 數脈을 兼하는 것은 熱盛한 것으로서 發熱이 많은 것으로 보았으며, 曹家達은 小柴胡湯에 知母와 石膏를 加味한 處方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李紘은 “數脈은 陽脈이고 風은 陽邪이므로 脈이 弦하면서 數하다. 風邪는 衛氣를 손상시켜서 邪氣를 받은 것이 오히려 얕으므로 다만 飲食으로 調節하는 것으로 그칠 뿐이다.”²⁵⁾고 하여 風邪를 感受한 것으로 보았다.

弦遲脈은 寒으로 인한 것이 많은(弦遲者多寒) 이유에 대하여 魏荔澗은 “弦遲한 것은 濕으로 內傷한 것이 많으니 濕에 傷하면 반드시 陽이 微弱하므로 惡寒이 많다. … 弦遲한 것은 遲脈 역시 寒이니 緊脈은 表寒이고 遲脈은 裏寒이니 溫法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²⁶⁾고 하여 濕과 寒으로 보

p. 1237~1240.

23) 尤怡: 瘧之邪氣在半表半裏之間이나 而人之藏則有偏多偏少之異라 故로 其病有熱多者하며 有寒多者하며 有裏多而可下者하며 有表多而可汗可吐者하니 當各隨其脈而施治也라

24) 魏荔澗: 弦數者는 內傷於熱者多也니 傷於熱則陰虛故로 多熱也라

25) 李紘: 數乃陽脈이오 風爲陽邪 故로 脈弦而數이라 風則傷衛하여 受邪尚淺 故로 但宜飲食消息止之라

26) 魏荔澗: 弦遲者는 內傷於濕者多也니 傷於濕必陽微故로 多寒也라

21) 曹家達: 瘧病所以屬少陽 則以手少陽三焦寒水不得暢行皮毛之故라 究其病由컨대 厥有數因하니 因人當暑舍하여 靜處尙堂蓬宇하여 披禁當風 則汗液當少하여 水氣之留於皮毛之裏者必多하니 秋風一起면 皮毛收縮하여 汗液乃凝滯於肌理하니 是爲一因이라 勞力之人이 晝汗沾漬하여 體中陽氣暴張하고 不勝煩熱하여 晝則浴以涼水하고 夜則眠當風露하면 未經秋涼이나 皮毛先閉하여 而水氣留著肌理者尤多하니 是爲二因이라 又或秋宵苦熱하여 驟冒曉涼하여 皮毛一閉하면 水氣被遏하니 是爲三因이라 三因雖有輕重之別이나 而皮裏膜外에 竝留水氣 故로 其脈皆弦이라 痰飲之脈必弦者는 由其有水氣故也라

22) E. Braunwald 외.; Harison's 내과학, 대한내과학회 해리슨내과학 편집위원회, 도서출판MIP, 서울, 2003,

았으나, 李炆은 “寒의 性質은 凝滯하므로 弦하면서 遲脈을 兼한다. … 脈이 弦遲한 경우는 遲脈 또한 寒이니 緊脈은 表寒이고, 遲脈은 裏寒이니 溫法을 써야 마땅하다.”²⁷⁾고 하여 寒으로 인한 것으로 보았다. 原文의 “弦遲者可溫之”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李炆의 說이 타당한 것으로 思料된다. 그러므로 曹家達은 “寒을 치료하는 것은 小柴胡湯에 乾薑과 桂枝를 加味한다.”²⁸⁾고 하여 處方을 제시하였다.

瘧疾에 脈이 弦小緊한 경우에 下法을 사용하면 낫는(弦小緊者下之差) 이유에 대하여 李炆은 “脈이 小緊한 것은 邪氣가 束縛하여 裏實이 된 것이므로 瀉下시키 수 있다.”²⁹⁾고 하여 裏實한 것이므로 瀉下시키면 病이 差度가 있다고 보았다. ‘弦小緊’을 魏荔澗은 “弦하면서 小緊한 것은 곧 細緊한 脈이니 細脈은 積聚이고, 緊脈은 實이니 內寒으로 論하여서는 안 된다. 積聚를 瀉下시키고 實한 것을 깨뜨리면 內因으로 因한 積實의 邪氣가 저절로 除去된다.”³⁰⁾고 하여 ‘細緊’으로 보았으나, 吳謙은 “弦小緊의 ‘小’字는 마땅히 ‘沈’字라야 瀉下시키는 이치가 있다.”³¹⁾고 하여 ‘弦沈緊’으로 보았다. 曹家達은 “먼저 桂枝白虎湯을 쓰고 나온 뒤에 계속하여 腹痛下利하면 大承氣湯을 사용하면 낫는다.”³²⁾고 하여 治方을 제시하였다.

瘧疾에 脈이 弦緊한 경우에 發汗과 鍼灸를 할 수 있는(弦緊者 可發汗鍼灸也) 이유에 대하여 李炆은 “寒邪가 榮氣를 損傷하면 脈이 弦緊하고 無汗하므로 發汗과 鍼灸를 할 수 있다.”³³⁾고 하였

고, 魏荔澗은 “弦하면서 細하지 않고 단지 緊한 것은 緊脈이 弦한 가운데 나타나면 浮緊한 脈이고, 細한 가운데 나타나면 沈緊한 脈이다. 沈緊은 內傷의 邪氣가 되고, 浮緊은 外感의 邪氣이다. 表에 外感한 것이면 發汗시킬 수 있고, 또 緊脈은 寒이 되니 針灸로써 解表하고 寒邪를 溫散하면 外因으로 인한 寒邪가 스스로 除去된다.”³⁴⁾고 하였다.

瘧疾에 脈이 浮大한 경우에 吐法을 쓸 수 있는(浮大者可吐之) 이유에 대하여 魏荔澗은 “浮大한 것은 浮脈은 表와 上을 살피고, 大脈은 盛이 되고 또한 實이 되니 實盛이 上部로 나타나면 邪氣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니 吐하게 하여 그 세력을 타고서 내보낼 수 있어서 이로써 內因으로 인한 實盛한 邪氣를 除去할 수 있다.”³⁵⁾고 하여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其高者 因而越之”의 例로서 보았으며, 曹家達은 “瓜蒂赤小豆散을 써서 催吐할 수 있다.”³⁶⁾고 하여 治方을 제시하였다.

이미 앞에서 “瘧疾에 脈이 弦數한 경우는 熱로 인한 것이 많다(弦數者 多熱)”고 하였는데 뒤에 다시 “瘧疾에 脈이 弦數한 경우는 風이 발생하니 飲食으로 조절해야 한다(弦數者 風發也 以飲食消息止之)”고 말한 것에 대하여 喻昌은 “發熱이 많은 것이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熱이 極에 達한다. 熱極하면 風이 發生하고, 風이 발생되면 肝木이 脾土를 侮하여 그 熱이 胃로 傳하여 津液이 消費된다. 陽이 더욱 偏盛하여 돌이킬 수 없으니 이는 단지 藥物으로써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적당한 飲食調理로써 그 發熱을 그치게 하여야 하니 곧 梨汁과 蔗漿이 生津止渴한다. 이것이 바로 『內經』에 ‘風淫於內 治以甘寒’의 뜻이다.”³⁷⁾

27) 李炆: 寒性凝滯 故로 弦而兼遲라 … 弦而遲者는 遲亦寒也니 緊爲表寒이오 遲爲裏寒也니 宜溫之라

28) 曹家達: 治寒者 則加乾薑桂枝라

29) 李炆: 脈小緊者는 邪氣束縛하여 爲裏實 故로 可下라

30) 魏荔澗: 弦而小緊者는 卽細緊也니 細爲積이오 緊爲實이니 不可作內寒論也라 下其積하고 破其實하면 內因于積實之邪自除矣라

31) 吳謙: 弦小緊者之小字는 當是沈字라야 則有可下之理라

32) 曹家達: 先用桂枝白虎湯하고 愈後에 繼以腹痛下利하면 用大承氣湯而愈라

33) 李炆: 寒傷榮하면 則弦緊而無汗 故로 可發汗鍼灸라

34) 魏荔澗: 弦不細而但緊者는 緊見于弦中則浮緊也오 見于細中則沈緊也라 沈緊爲內傷之邪오 浮緊爲外感之邪也라 外感于表可發汗이오 又緊爲寒이니 可針灸解其表溫其寒하야 而外因于寒邪自可除矣라

35) 魏荔澗: 浮大者는 浮候表 亦候上이오 大爲盛 亦爲實이니 實盛見于上하면 邪在高分也니 可吐之乘其勢而涌出하야 以除其內因實盛之邪也라

36) 曹家達: 可用瓜蒂赤小豆散以吐之라

하여 앞의 弦數한 脈이 나타나는 發熱이 많은 학질이 더욱 심하여 風을 발생하게 되면 藥으로써만 치료하여서는 不足하니 반드시 梨汁과 蔗漿과 같이 生津止渴하는 飲食으로 調理를 並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思料된다. 다만 『內經』에 '風淫於內 治以甘寒'의 뜻이라고 하였는데, 『素問·至真要大論』에는 "風淫於內 治以辛涼"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素問·至真要大論』에 "風淫於內 治以辛涼... 熱淫於內 治以鹹寒 佐以甘苦..."라 하였으니 '風發'이 熱極生風한 것이므로 風을 치료하기 위하여 涼으로써 爲主하고, 熱을 치료하기 위하여 甘味로써 佐한다는 意味로 말한 것으로 思料된다.

第 2節 瘧母

【原文】

病瘧이 以月一日發하면 當以十五日愈⁽¹⁾로대 設⁽²⁾不差⁽³⁾면 當月盡解나 如其不差⁽¹⁾면 當云何오 師曰 此: 結爲癥瘕⁽²⁾⁽⁴⁾니 名曰瘧母오 急治之니 宜蠶甲煎丸主之라

蠶甲煎丸方⁽³⁾

蠶甲十二分炙⁽⁵⁾ 烏扇⁽⁶⁾三分燒⁽⁷⁾ 黃芩三分 柴胡六分 鼠婦⁽⁸⁾三分熬⁽⁹⁾ 乾薑三分 大黃三分 芍藥五分 桂枝三分 葶藶一分 石葶三分去毛 厚樸⁽¹⁰⁾三分 牡丹皮五分去心 瞿麥二分 紫葳⁽¹¹⁾三分 半夏一分 人蔘一分 蠹蟲⁽¹²⁾五分熬 阿膠三分炙 蜂窩⁽¹³⁾四分炙 赤硝⁽¹⁴⁾十二分 蜣螂⁽¹⁵⁾六分熬 桃仁二分

上二十三味: 爲末하고 取煨窰下灰⁽¹⁶⁾一斗하여 清酒⁽¹⁷⁾一斛⁽¹⁸⁾五斗에 浸灰하고 候⁽¹⁹⁾酒盡一半⁽²⁰⁾하여 着蠶甲於中하고 煮令泛爛如膠漆⁽²¹⁾에 絞⁽²²⁾取汁하여 內⁽²³⁾諸藥하여 煎爲丸로대 如梧子大라 空心에 服七丸을 日三服이라

37) 喻嘉言: 醫門法律,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292.

千金方엔 用蠶甲十二片하고 又有海藻三分 大戟一分 蠹蟲五分하고 無鼠婦赤硝二味오 以蠶甲煎⁽¹⁾로 和諸藥爲丸이라

【校勘】

- 1) 如其不差 : 『千金·卷十』에는 "今不愈"로, 『外臺·卷五』에는 "如期不差"로 되어 있다.
- 2) 此結爲癥瘕 : 『脈經·卷八』에는 "瘧病結爲癥瘕"로 되어 있다.
- 3) 蠶甲煎丸方: 『外臺·卷五』에는 "大蠶甲煎丸方"으로 되어 있다.
- 4) 赤硝: 「醫統本」과 『外臺·卷五』에는 "赤消"로 되어 있다.

【註釋】

- (1) 愈: 病差, 병나을 유
- (2) 設: 假借之辭, 설령 설
- (3) 差: 病癒, 병나을 차
- (4) 癥瘕(경가): 아랫배 속에 덩이가 생긴 병증. 癥은 단단한 것이 생겨 움직이지 않는 것을, 瘕는 단단한 것이 생겨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 (5) 炙: 合炒라고도 함. 藥材를 액체 보조 재료에 재웠다가 볶거나 굽는 것을 말한다.
- (6) 烏扇(오선): 射干的 異名.
- (7) 燒: 燻也, 태울 소
- (8) 鼠婦(서부): 地鼠 또는 鼠負라고도 하며, 쥐머느리와 동물 平甲蟲의 말린 전체이다.
- (9) 熬: 乾煎, 볶을 오
- (10) 厚樸(후박): 厚朴의 異名.
- (11) 紫葳(자위): 凌霄花의 異名.
- (12) 蠹蟲(자충): 地鼈 또는 土鼈이라고도 하며, 땅강아지이다.
- (13) 蜂窩(봉와): 露蜂房의 異名.
- (14) 赤硝(적초): 赤消의 別稱. 芒硝의 一種.
- (15) 蜣螂(강랑): 夜遊將軍이라고도 하며, 쇠똥구리의 말린全體이다.

- (16) 煨竈下灰(하조하회): 아궁이 바닥의 재.
- (17) 淸酒(청주): 다른 것을 섞지 아니한 전 국으로 된 술로서 쌀로 만든다.
- (18) 斛: 量名, 十斗, 휘 곡
- (19) 候: 待也, 기다릴 후
- (20) 一半(일반): 折半
- (21) 膠漆(교칠): 아교(阿膠)와 칠(漆)
- (22) 絞: 急也, 급격할 교, 비틀어 짜다.
- (23) 內: 入也, 들일 남

【國譯】

癰疾이 그 달 초하루에 발생하면 十五日 內에 낫고, 만약 낫지 않으면 한 달이 다되어서 나오나 만약 낫지 않으면 무엇이라 합니까? 스승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멍쳐서 癰疽가 된 것이니 癰母라 하고, 빨리 치료하여야 하니 鰲甲煎丸으로 主治하는 것이 마땅하다.

鰲甲煎丸方

鰲甲十二分(구운 것) 烏扇三分(태운 것) 黃芩三分 柴胡六分 鼠婦三分(볶은 것) 乾薑三分 大黃三分 芍藥五分 桂枝三分 葶藶一分 石葦三分(터럭을 없앤다) 厚樸三分 牡丹皮五分(心を 빼 것) 瞿麥二分 紫葳三分 半夏一分 人參一分 蠅蟲五分(볶은 것) 阿膠三分(구운 것) 蜂窩四分(구운 것) 赤硝十二分 蜣螂六分(볶은 것) 桃仁二分

위의 二十三味를 가루로 만들고 술 아래의 재 一斗를 一斛五斗의 淸酒에 담가서 술이 절반 정도 스며들기를 기다렸다가 그 안에 鰲甲을 넣고 膠漆처럼 완전히 물러지도록 삶아서 비틀어 짜서 汁을 얻어 위의 모든 藥을 넣고 달여서 梧子大 크기로 丸을 만든다. 空心에 七丸씩 하루에 세 번 服用한다.

千金方에는 鰲甲을 十二片 사용하였고 또한 海藻三分, 大戟一分, 蠅蟲五分이 있고 鼠婦와 赤硝 두 가지는 없고 鰲甲을 달여서 모든 藥을 섞어서 丸을 만들었다.

【考察】

본 條文은 癰母의 形成과 治療를 논술하였다.

癰母는 李昉이 “邪氣는 盛하고 正氣는 衰하여 氣血이 結聚하여 痰과 飲食과 단단히 멍쳐서 풀리지 않는다.”³⁸⁾고 하여 癰疾이 오래도록 낫지 않고 人體의 正氣는 衰弱하고 癰邪는 盛하여 癰邪가 氣血과 痰飲을 結聚시켜서 脇下에 癰瘕를 형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陳은 “本 條文에 論한 癰母는 현대의 脾腫大와 類似하다”³⁹⁾고 하였다.

癰母가 오래되면 또한 正氣가 날로 衰하게 하니 이렇게 되면 다른 병이 쉽게 발생되기 쉬우므로 앞의 條文에 일반적인 癰疾의 治療에 대하여 “飲食으로 調節해야 한다.(以飲食消息止之)”고 말한 것과 다르게 “빨리 치료해야 한다.(急治之)”고 하였다.

“癰疾이 그 달 초하루에 발생하면 十五日 內에 낫고, 만약 낫지 않으면 한 달이 다되어서 낫는다.(以月一日發 當以十五日愈 設不差 當月盡解)”는 이유에 대하여 吳謙은 “癰疾이 한 달을 기준으로 매일 한 번씩 발작하는 사람은 十五日이 지나면 나오니 十五日에 氣가 變更되기 때문이다. 人身은 天으로부터 氣를 받으니 天氣가 變更되면 人身의 氣, 또한 變更되고 變更된 氣가 旺盛하면 癰邪를 받지 않으므로 낫는다. 만약 差度가 없으면 한 달 안에 낫는 것은 이 또한 다시 旺盛한 氣로 바꾸기 때문이다.”⁴⁰⁾고 하여 癰疾이 天氣의 變更를 따라 人身의 氣, 또한 旺盛하게 變更되어 낫는다고 보았으나, 李昉은 “月一日은 해당하는 그 달 안에 癰疾이 처음 발작하는 첫 번째 날을 말한다. 傳經은 七日이 한 週期가 되고 十五日에는 다시 傳經이 끝나므로 癰疾이 낫는다.”⁴¹⁾고

38) 李昉: 邪盛正衰하여 血結氣聚하여 或痰與食固結不解也라

39) 金匱要略: 陳紀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2, p. 149.

40) 吳謙: 癰疽者가 以月計之如一日發者는 當以十五日愈하니 以十五日更一氣也라 人受氣於天하니 天氣更則人身之氣亦更하고 更氣旺則不受癰邪 故로 愈也라 設若不差면 當月盡解는 是又更一旺氣也라

41) 李昉: 月一日은 謂本月內에 癰初發之第一日也라 傳經七日爲一周하고 十五日再傳經盡 故로 癰當愈라

하여 瘧疾이 한 달을 기준으로 처음 발작한 뒤十五日이 되면 낫는 것으로 보았다. 비록 瘧疾이 發作하는 樣態에 대한 설명은 다르지만 天氣가 變更됨에 따라 人體의 正氣가 역시 盛衰의 變化가 있고 이러한 變化가 疾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曹家達은 “瘧疾을 앓는 緣由는 寒熱을 벗어나지 않으니 加減小柴胡湯을 일찍 사용하면 어찌 十五日·一月이 되어 비로소 낫겠는가? 하물며 한 달 안에 낫지 않으면 結聚하여 癥瘕가 된다는 말은 더욱 믿지 못할 것이니 이는 傳寫의 誤謬이다.”⁴²⁾고 하여 이에 대하여 否定的인 見解를 보이고 있다.

鱉甲煎은 곧 무쇠가마솥 아래에 있는 제 一斗를 一斛五斗의 淸酒에 넣어서 술이 절반쯤 스며들면 鱉甲을 넣고 삶아서 阿膠처럼 꼭 익혀 즙을 짜서 여기에 23가지의 약물을 가루를 내어 梧子大크기로 만든다. 鱉甲煎을 君藥으로 삼으면 肝으로 들어가 軟堅散結할 수 있고 아궁이의 제는 消積化痰할 수 있으며; 술은 通血脈하니 모두 軟堅散結하고 活血化痰하며; 烏扇·桃仁·牡丹皮·芍藥·紫葳·赤硝·大黃을 佐하여 活血祛瘀通滯하며; 鼠婦, 蟪蟲, 蜂窩·蜈蚣으로 化痰消堅하고 殺蟲治瘧하면 효과가 더욱 나타나며; 石葦·瞿麥·葶藶은 通利水道하며; 柴胡·半夏·黃芩·厚朴 및 姜桂 등은 少陽으로 들어가 少陽의 氣機를 疏通시키고 寒熱을 調和하며; 人蔘·阿膠는 補益氣血한다. 모든 약을 함께 사용하면 除痰消癥하고 行氣化痰하여 寒熱에 함께 사용하고 攻補를 兼해서 施行하는데 攻이 주가 된다. 실제로 瘧母를 치료하는 主方이 된다.⁴³⁾

瘧母의 治方으로 鱉甲煎이 제시되어 있으나, 구하기 힘든 藥材들이 있고, 赤硝와 같은 경우 芒硝의 한 가지로서 『本草綱目』⁴⁴⁾에 “色이 靑白

色者인 것은 좋으나 黃色인 것은 사람을 傷害하고 赤色인 것은 사람을 죽인다.(色靑白者佳 黃者傷人 赤者殺人)”고 하였으니 사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後代에 『醫宗必讀』⁴⁵⁾에는 六君子湯에 木香·肉桂·蓬朮·鱉甲을 加味하여, 『證治準繩』⁴⁶⁾에는 瘧母丸을 제시하였다.

현대에 와서 鱉甲煎丸을 張⁴⁷⁾은 急性脾臟腫大와 肝炎肝腫大를 치료하였는데 發熱이 그치지 않는 경우에 本方에 加減하고 丸을 湯劑로 바꾸어 사용하였고, 解熱肝脾縮小의 작용이 있다고 하였으며, 陳⁴⁸⁾은 血吸蟲病과 肝脾腫大를 치료하였고, 李⁴⁹⁾는 晚期血吸蟲病肝脾腫大를 치료하였고, 馬⁵⁰⁾은 卵巢囊腫을 치료하였고, 馬⁵¹⁾는 早期肝硬化肝腫大를 치료한 예를 보고하였다.

第 3節 瘧瘧

【原文】

師曰 陰氣孤絕하고 陽氣獨發하면 則熱而少氣煩冤¹⁾⁽¹⁾하며 手足熱而欲嘔니 名曰瘧瘧이라 若但熱不寒者는 邪氣內藏於心하고 外舍於分肉之間하여 令人消鑠脫肉²⁾이라

【校勘】

- 1) 煩冤 : 『千金·卷十』과 『外臺·卷五』에는 “煩悶”으로 되어 있다.

45) 李仲梓: 醫宗必讀,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8. p. 215.
 46) 王肯堂: 證治準繩,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55.
 47) 張谷才: 從金匱方來談瘧血的論治, 遼寧中醫雜誌, 1980, vol 7, p. 1.
 48) 陳世福: 鱉甲煎丸251例晚期血吸蟲病肝脾腫大療效觀察, 江西中醫藥, 1959, vol 6, p. 6.
 49) 李凌臺: 金匱鱉甲煎配合阿魏消痞丸治療晚期血吸蟲病肝脾腫大41例療效觀察, 浙江中醫雜誌, 1957, vol 4, p. 153.
 50) 馬劍云: 鱉甲煎丸治癒雙側卵巢囊腫一例, 中醫雜誌, 1982, vol 7, p. 45.
 51) 馬鴻忠: 金匱方論與臨床,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 314.

42) 曹家達: 病瘧之由는 不外寒熱이니 早用加減小柴胡湯이면 何至十五日一月而始愈리오 泥一月不差면 結爲癥瘕之說은 尤不可信이니 此는 傳寫之誤也라
 43) 金匱要略: 陳紀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2, p. 149.
 44)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p. 279.

【註釋】

- (1) 煩冤: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움. (*冤: 枉曲, 원통할 원)
 (2) 消鑠脫肉: 몸이 마르고 살이 빠짐. (*鑠: 銷也, 쇠 녹일 삭)

【國譯】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陰氣만 홀로 끊어지고 陽氣만 홀로 드러나면 發熱하고 少氣하고 煩冤하며 手足熱하고 嘔吐를 하려고 하니 瘧瘧이라 한다. 만약 發熱하기만 하고 惡寒하지 않는 경우는 邪氣가 안으로는 心에 있고 밖으로는 分肉의 사이에 있어서 환자가 精血이 消耗되어 살이 빠지게 된다.

【考察】

본 條文은 瘧瘧의 病機와 症狀에 대하여 논술하였는데, 『素問·瘧論』에 말한 “오로지 發熱하고 惡寒하지 않는 것은 陰氣가 먼저 끊어져서 陽氣만 홀로 발작하는 것이니 發熱하고 少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手足熱하고 嘔吐를 하려고 하니 瘧瘧이라 한다.”⁵²⁾고 말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瘧瘧의 病機에 대하여 原文에 “陰氣만 홀로 끊어지고 陽氣만 홀로 퍼진다(陰氣孤絕 陽氣獨發)”, “邪氣가 안으로는 心에, 밖으로는 分肉의 사이에 머무른다.(邪氣內藏於心 外舍於分肉之間)”고 하였는데, 『素問·瘧論』에는 평소엔 肺에 熱이 있고 그 熱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다가 勞役을 하여 腠理가 열리면 風寒이 皮膚와 分肉의 사이에 머물러서 內部의 熱과 外部로부터 侵入한 風寒이 相薄함으로써 發作된다⁵³⁾고 하였다.

瘧瘧의 특징인 “發熱만 하고 惡寒하지 않는다.(但熱而不寒)”는 이유에 대하여 陳念祖은 “肺에 평소 熱이 있는데 우연히 風寒을 感受하여 안으로 心에 쌓이고 밖으로 分肉에 머무르면 表는 寒한데 裏는 熱하여 이로 인하여 陰氣가 안에서 虛하여 陽과 競爭하지 못하므로 단지 發熱하기만 하고 惡寒이 발생되지 않는다.”⁵⁴⁾고 하였으며, 나타나는 症狀에 대하여 尤怡는 “陰氣가 虛하면 陽氣가 반드시 發動하고 陽氣가 發動하면 氣를 損傷시키고 神을 耗損시키기 충분하므로 少氣煩冤하게 되고, 四肢는 모든 陽의 根本이니 陽盛하므로 手足熱하게 되고, 欲嘔하는 것은 熱이 胃를 侵犯하였기 때문이다.”⁵⁵⁾고 하였다.

“邪氣內藏於心”의 ‘心’에 대하여 註釋注家들은 아래의 세 가지로 해석하였다. 첫째, 尤怡와 같이 “瘧瘧은 陽邪이고 心은 陽臟이 되니 陽邪가 陽藏을 따른 것이므로 밖으로 分肉에 머물러 있으나 그 氣는 心臟에 通한다.”⁵⁶⁾라 하여 ‘心臟’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고, 둘째, 『金匱學習參考資料』에 “이 ‘心’字는 內臟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고 한 것처럼 ‘內臟’을 가리킨 것으로 보았고, 셋째, 曹家達이 『金匱要略發微』에 “邪氣內藏於心 外舍於分肉之間은 表裏가 모두 熱한 것을 형용하는 것이지 心臟에 熱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⁵⁷⁾고 한 것처럼 ‘內’와 ‘裏’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瘧瘧의 病機를 『素問·瘧論』에 “內部的 氣가 實하되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다가 힘든 일을 하여 腠理가 열리면 風寒이 皮膚와 分肉의 사이에 머물렀다가 發動하게 된다.(中氣實而不外泄 因有所用力 腠理開 風寒 舍於皮膚之內 分肉之間而發)”고

52) 素問·瘧論: 其但熱不寒者 陰氣先絕 陽氣獨發 則熱而少氣煩冤 手足熱而欲嘔 名曰瘧瘧

53) 素問·瘧論: 瘧瘧者 肺素有熱 氣盛於身 厭逆上衝 中氣實而不外泄 因有所用力 腠理開 風寒이 舍於皮膚之內 分肉之間而發 發則陽氣盛 陽氣盛而不衰 則病矣 其氣不及於陰 故 但熱而不寒 氣內藏於心 而外舍於分肉之間 令人消鑠脫肉 故 命曰瘧瘧이라

54) 陳念祖: 肺素有熱而偶受風寒 內藏於心 外舍於分肉하면 表則寒而裏則熱 緣陰氣內虛 不能與陽相爭 故 但熱而不作寒也라

55) 尤怡: 夫陰氣虛者 陽氣必發 發則足以傷氣而耗神 故 少氣煩冤也 四肢者 諸陽之本 陽盛則手足熱也 欲嘔者 熱于胃也라

56) 尤怡: 瘧爲陽邪 心爲陽臟이니 以陽從陽 故 外舍於分肉하고 其氣通於心臟也라

57) 曹家達: 邪氣內藏於心 外舍於分肉之間은 不過形容表裏俱熱이오 非指心臟有熱이라

하였는데 鄭⁵⁸⁾은 '中'은 안쪽, 즉 몸 內部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서 몸에 전반적으로 熱氣가 實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素問·瘧論』의 溫瘧에 관한 논술에 "病藏於腎"이라고 하여 특정 藏府를 가리키고 있어서 여기서도 특정한 藏府를 명시하여야 한다면 心의 邪氣는 心包가 대신해서 받기 때문에 '心' 대신에 '心包'라고 하여야 한다. 心은 五臟六腑의 大主이며 君藏이므로 邪氣를 받지 않으므로 '心'은 '內裏'를 가리키는 것으로 思料된다.

치료 처방에 대하여 李⁵⁹⁾은 白虎加桂枝湯을, 陳念祖는 竹葉石膏湯⁵⁹⁾을 제시하였는데, 陳은 "竹葉石膏湯 안의 人蔘이 益氣生津할 뿐 아니라 麥門冬이 養陰清熱하며; 竹葉은 石膏와 함께 쓰면 清熱의 효과를 증강하며; 半夏는 降逆止嘔하니 모든 약을 함께 사용하여 原文에서 서술한 症狀과 病機와 符合되니 내 생각으로는 매우 恰當하다고 생각된다."⁶⁰⁾고 하였다.

第 4節 溫瘧

【原文】

溫瘧者¹⁾其脈如平¹⁾하고 身無寒¹⁾하고 但熱¹⁾하네 骨節疼煩²⁾하고 時嘔³⁾하니 白虎加桂枝湯主之¹⁾

白虎加桂枝湯方

知母六兩 甘草二兩炙 石膏一斤 粳米二合 桂枝去皮三兩

上剉¹⁾하고 每五錢¹⁾을 水一盞半¹⁾으로 煎至八分¹⁾하여 去滓¹⁾하고 溫服¹⁾하면 汗出愈¹⁾

【校勘】

1) 其脈如平 : 『千金·卷十』에는 "其脈如平人"

58) 鄭東溟: 素問·瘧論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1994, pp. 95~96.

59) 竹葉二把 石膏二斤 半夏半升 人蔘三兩 甘草三兩 粳米半升 麥門冬...升
張機: 仲景全書, 集文書局, 臺北, 1983, p. 288.

60) 金匱要略: 陳紀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2, pp. 150~151.

으로 되어 있다.

2) 骨節疼煩 : 『千金·卷十』에는 "病六七日但有熱也 骨節疼煩"으로 되어 있다.

3) 時嘔 : 『脈經·卷八』과 『千金·卷十』에는 "時嘔 朝發暮解 暮發朝解 名溫瘧"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剉 : 斬截, 도막칠 劓

【國譯】

溫瘧은 脈이 平常과 같고 身體가 惡寒이 없고 단지 發熱만 하고 骨節疼煩하고 때로 嘔吐를 하니 白虎加桂枝湯으로 主治한다.

白虎加桂枝湯方

知母六兩 甘草二兩(구운 것) 石膏一斤 粳米二合 桂枝(겉질을 제거한다)三兩

위의 약물을 썰어서 五錢씩을 물 一盞半으로 八分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溫服하면 땀이 나면서 낫는다.

【考察】

本 條文은 溫瘧의 脈證과 治療를 논술하였다.

『素問·瘧論』에 "帝曰 先熱而後寒者 何也 ... 名曰溫瘧"이라 하여 溫瘧의 症狀를 '先熱而後寒'이라 설명하였고, "溫瘧은 겨울에 風寒의 侵入을 받아 그 氣가 骨髓 속에 머물렀다가 봄이 되어 陽氣가 크게 發動할 때 邪氣가 스스로 나가지 못하였다가 심한 더위를 만나서 腦髓와 肌肉이 消燼하고 腠理가 열려서 땀이 나거나, 혹은 勞動을 하면 邪氣와 땀이 함께 나오니, 이는 病邪가 腎에 간직되어 있다가 그 氣가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陰은 虛하고 陽은 盛한 것이니, 陽이 盛하면 發熱하게 되고, 衰하면 邪氣가 들어가게 되고, 다시 들어가면 陽은 虛하게 되니 陽이 虛하면 惡寒하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發熱한 뒤에 惡寒이 생긴다."⁶¹⁾고 하여 溫

61) 素問·瘧論: 溫瘧者 得之冬中於風寒 氣藏於骨髓之中 至春則陽氣大發 邪氣不能自出 因遇大暑 腦髓燼 肌肉

瘧의 病因과 病機를 설명하였는데 本 條文은 이에 基礎한 것이다.

『素問·瘧論』을 보면 溫瘧과 瘧瘧이 모두 '發熱'이 爲主가 되나 溫瘧은 先熱後寒의 형태이고, 瘧瘧은 但熱不寒의 형태로써⁶²⁾ 설명하였으나, 『金匱』에는 溫瘧과 瘧瘧을 모두 '但熱不寒'한 것으로 설명하여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魏荔澗은 "仲景이 말한 二證은 '但熱不寒'한 瘧疾이니 하나를 瘧瘧이라 하고 다른 하나를 溫瘧이라 하였다. 內經에 말한 二證은 '先熱後寒'한 瘧疾로서 모두를 溫瘧이라 하였으니 이는 寒熱의 有無와 先後로써 區分한 것이다."⁶³⁾고 설명하였다. 또한 魏荔澗은 "仲景이 瘧瘧이라 한 것은 但熱不寒한 發熱은 熱이 心에 根源하여 發生되어 熱氣가 分肉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溫瘧의 但熱不寒한 發熱은 陽氣가 表에 鬱結된 熱에 지나지 않으므로 脈如平하니 이 二證은 그 發熱의 淺深으로 구분한 것이다."⁶⁴⁾고 하여 『素問·瘧論』은 惡寒發熱의 有無·先後로써, 金匱는 熱의 淺深으로 구분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溫瘧과 瘧瘧이 모두 '但熱無寒'한 것에 대하여 尤怡는 "瘧瘧과 溫瘧이 모두 無寒但熱하고 嘔證이 있으나 그 原因은 같지 않다. 瘧瘧은 肺에 평소 熱이 있는데 外感이 더해져서 表寒裏熱의 證이 된 것이니 陰氣가 內虛하여 陽과 相爭할 수 없으므로 惡寒이 발생하지 않는다. 溫瘧은 邪氣가 腎 가운데 內藏되어 있다가 春夏에 이르러 發動하기

시작하여 伏氣가 밖으로 나온 證이 된 것이니 寒이 오래도록 蓄積되어 熱로 變換한 것이므로 또한 惡寒이 발생되지 않는다."⁶⁵⁾고 하여 溫瘧과 瘧瘧이 모두 '無寒但熱'과 '嘔吐'의 症狀이 있어서 비록 類似하지만 瘧瘧은 평소 肺에 熱이 있는 상태에 外感이 더해져서 발생되고, 溫瘧은 寒이 熱로 變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原因이 같지 않다고 하였다.

"그 脈이 平常과 같다(其脈如平)"에 관하여 尤怡는 "病이 갑자기 感觸된 것이 아니므로 脈이 平時와 같다"⁶⁶⁾고 하여 正常人的 脈으로 보았고, 程林은 "脈如平은 平常의 脈이 아니다."⁶⁷⁾고 하여 瘧瘧의 平常脈인 '弦脈'으로 보는 두 가지가 있다. 魏荔澗이 "이른바 瘧病이 複雜多端하지만 少陽을 治療하는 것에 벗어나지 않는다."⁶⁸⁾고 하였고, 李炆은 "其脈如平은 邪氣가 깊어 들어가 안에 伏藏하여 平常과 같지 않으나 마치 平常과 같을 따름이다."⁶⁹⁾고 하여 程林과 같은 견해를 보인다. 이에 대하여 陳은 "실제임상으로 볼 때, '但熱無寒'은 裏熱이 熾盛한 사람이며 中醫의 濕溫病과 西醫의 腸傷寒病에 相對적으로 緩脈이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數弦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적으며, 이 溫瘧은 결코 濕溫病脈에 속하지 않으니 '脈平'은 보통의 熱瘧의 脈, 즉 弦數脈에 屬하여야 이치에 맞다. 그 다음, 原文에 "脈如平"이라 한 것은 실제로는 非正常脈이다. 溫瘧과 瘧瘧은 모두 無寒但熱하여 熱瘧에 속하고 둘의 감별은 瘧瘧은 氣와 陰이 두 가지 모두 虛하여 內外가 모두 熱하나 溫瘧에는 없고 단지 表證만 있으므로 輕微한 惡寒 또는 惡風으로 인식하기도 하는데,

消 痰理發泄 或有所用力 邪氣與汗皆出 此病藏於腎 其氣先從內出之於外也 如是者 陰虛而陽盛 陽盛則熱矣 衰則氣復入 入則陽虛 陽虛則寒矣 故先熱而後寒

62) 素問·瘧論: 帝曰 先熱而後寒者 何也 岐伯曰 此先傷於風而後傷於寒 故先熱而後寒也 亦以時作 名曰溫瘧 其但熱而不寒者 陰氣孤絕 陽氣獨發 則熱而少氣煩冤 手足熱而欲嘔 名曰瘧瘧

63) 魏荔澗: 仲景所言者是 二證但熱不寒之瘧也 一曰瘧瘧也 一曰溫瘧也 內經所云者是 二證先熱後寒之瘧也 俱曰溫瘧也 此以寒熱之有無先後爲分晰者也

64) 魏荔澗: 仲景所名瘧瘧은 但熱不寒之熱이니 熱根生於心而熱氣舍於分肉이오 至於溫瘧之但熱不寒之熱하야는 則不過陽鬱於表之熱 故로 脈如平하니 此二證은 其熱大分淺深也라

65) 尤怡: 瘧瘧溫瘧이 俱無寒但熱하고 俱嘔나 而其因不同이라 瘧瘧者는 肺素有熱 而加外感하야 爲表寒裏熱之證이니 緣陰氣內虛하야 不能與陽相爭 故로 不作寒也라 溫瘧者는 邪氣內藏腎中이라가 至春夏而始發하야 爲伏氣外出之證이니 寒蓄久而變熱 故로 亦不作寒也라

66) 尤怡: 病非乍感 故로 脈如其平時也라

67) 程林: 脈如平은 非平也라

68) 魏荔澗: 所謂瘧病이 多端하나 不離少陽爲治也라

69) 李炆: 其脈如平者는 邪氣深入하야 伏藏于內하야 不平而如平耳라

程度가 輕微하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깨달아 살피기가 쉽지 않다. 魏荔洞과 같은 사람은 '오직 外感의 風寒이 表分에 鬱結된 것이다. (惟其外感之風寒鬱于表分)'고 하였으니 이 말 또한 옳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어째서 桂枝가 필요하겠는가?⁷⁰⁾고 하였으니 程林의 見解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處方에 대하여 唐宗海는 "身無寒但熱은 白虎湯을 쓰는 正證이다. 桂枝를 加한 것은 骨節煩疼의 證이 있기 때문이니 곧 寒邪가 筋節에 潛伏되어 있으므로 桂枝를 써서 쫓아내는 것이다."⁷¹⁾고 하였으니, 溫瘧은 內熱熾盛하고 外感風寒한 것으로 白虎湯으로 淸熱하고 桂枝를 加味하여 筋節에 潛伏되어 있는 寒邪를 몰아내기 위함이니 이는 處方의 끝에 '汗出愈'라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현대에 와서 白虎加桂枝湯을 이용하여 曾⁷²⁾은 急性風濕性關節炎을 치료하였고, 周⁷³⁾는 外感化熱症을 治療하였다. 施⁷⁴⁾의 실험연구에 의하면 白虎加桂枝湯으로 痺證을 치료하는 機轉은 계란 흰자로 인한 白鼠의 발가락 浮腫을 抑制하고, 白鼠의 肉芽腫을 抑制하고, 巴豆油로 유발된 귀의 浮腫을 억제하고, 어린 白鼠의 腹腔毛細血管의 透過性을 抑制하고, 鎮痛作用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第 5節 牡瘡

【原文】

瘡多寒者⁷⁵⁾ 名牡瘡⁷⁶⁾이니 蜀漆散主之라

蜀漆散方

70) 金氏要略: 陳紀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2, p. 151.

71) 唐宗海: 身無寒但熱은 爲白虎湯之正證이라 加桂枝者⁷⁵⁾ 以有骨節煩疼證이니 則有伏寒在於筋節 故로 用桂枝逐之也라

72) 曾友長: 白虎加桂枝湯治療急性風濕性關節炎60例療效觀察, 福建中醫, 1989, vol 4, p. 16.

73) 周漢清: 白虎加桂枝湯在外感病中的應用, 新中醫, 1984, vol 4, p. 48.

74) 施旭光: 白虎湯加桂枝湯治療痺證的藥理研究, 廣州中醫學院學報, 1991, vol 1, p. 23.

蜀漆⁷²⁾洗⁷³⁾去腥 雲母燒⁷⁴⁾二日夜 龍骨等分
上三味⁷⁵⁾ 杵⁷⁶⁾爲散하야 未發前에 以漿水⁷⁷⁾服半
錢이라 溫瘧엔 加蜀漆半分이라 臨發時에 服一錢匕라
一方엔 雲母作雲實이라

【校勘】

- 1) 牡瘡: 『醫統本』·『醫宗金鑑』·『廣注』 및 『外臺·卷五』에는 『傷寒論』을 引用한 것에는 "牡瘡"으로 되어 있어 이를 따른다.

【註釋】

- (1) 牡瘡 : 학질의 하나. 평상시에 陽이 虛한 사람이 학질의 邪氣를 받아서 생긴다. 주기적으로 발작하는데 발작할 때 惡寒戰慄이 심하고 熱은 심하지 않거나 나지 않으며 얼굴은 창백하다. (*牡: 動物女性, 암컷 빈)
- (2) 蜀漆 : 범의귀과 식물 黃常山の 어린 가지와 잎이다.
- (3) 洗 : 물로 藥物의 表面에 附着한 흙이나 그 외의 不純物을 씻어 내는 것(*洗: 滌也, 씻을 세.)
- (4) 腥 : 臭也, 비릴 성
- (5) 燒 : 燻也, 구울 소
- (6) 杵 : 舂杵, 공이 지
- (7) 漿水 : 漿은 酢이다. 『本草綱目』에는 漿水를 酸漿이라고도 하였다. 嘉謨가 말하길 "불 때어서 粟米를 익혀서 찬물에 5~6일 담가두면 맛이 시고 白花가 생기며 漿과 비슷한 색이 된다."⁷⁵⁾고 하였다. 현재 이 방법은 별로 쓰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漿水는 마시는 것의 總稱이다. 곧 물로 복용한다는 뜻이다.⁷⁶⁾

75)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p. 172.

76) 李克光: 漿은 酢也라 『本草綱目』稱 漿水又名酸漿이라 嘉謨云 "炊粟米熟하야 投冷水中하야 浸五六日이면 味酸하고 生白花 色類漿 故로 名"이라 此法現已少用이라 一般以漿水爲飲類之總稱이라 卽以水調服之意라

【國譯】

瘧病的 症狀이 惡寒이 많은 것은 牝瘧이니 蜀漆散으로 主治한다.

蜀漆散方

蜀漆(씻어서 비린내를 없앤다)과 雲母(이틀 동안 굽는다)와 龍骨을 같은 分量으로 한다.

위의 세 가지 약물을 공이로 찧어 가루를 만들어서 發作하기 前에 漿水로 半錢씩 服用한다. 溫瘧에는 蜀漆半分을 加한다. 發作이 臨했을 때에는 一錢匕씩 服用한다. 一方에는 雲母가 雲實로 되어 있다.

【考察】

본 條文은 牝瘧의 證治를 논하였다.

牝瘧의 病因病機에 대하여 李紘은 “內經은 先寒後熱하는 것을 寒瘧이라 하였고, 仲景은 多寒한 것을 牝瘧이라 하였다.”⁷⁷⁾고 하여 『素問·瘧論』에 “여름에 심한 더위에 傷하여 땀이 많이 나고 腠理가 열렸을 때에 여름의 차가운 水寒을 만나면, 水寒이 皮膚와 腠理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가을에 風에 傷하면 病이 形成된다. 무릇 寒은 陰氣이고, 風은 陽氣이니 먼저 寒에 傷한 뒤에 나중에 風에 傷하였으므로 먼저 惡寒이 있는 뒤에 發熱하니 溫瘧이라한다.”⁷⁸⁾고 설명한 寒瘧의 說을 따랐으나, 曹家達은 “瘧疾에 惡寒이 많은 것은 皮毛에 水氣가 막혀서 陽氣가 宣通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水氣가 上部에 머무르면 점차로 痰涎을 形成하므로 世俗에 痰이 없으면 瘧疾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⁷⁹⁾고 하여 水氣가 陽氣의 運行을 막아서 痰飲이 形成되어 瘧疾이 발생

된다고 하였으며, 張璐 또한 “津液이 積聚되어 痰을 이루기 때문에 惡寒이 많다.”⁸⁰⁾고 하였다. 原文에 제시된 牝瘧의 治方인 蜀漆散은 蜀漆·雲母·龍骨이 같은 分量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록 李紘이 “雲母의 根本은 陽起石이다. … 性溫氣升하여 陽氣를 升發하고, 龍骨은 陽에 屬하여 陰邪를 몰아내고 陽氣를 興起시킨다.”⁸¹⁾고 하여 前者의 說에 符合되나, 蜀漆으로써 痰飲을 먼저 除去하여야 陽氣가 升發되므로 後者의 說이 타당하다고 思料된다.

牝瘧의 症狀을 “瘧多寒”이라 하여 發熱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당연히 發熱이 있으니 陳은 “단지 발열의 시간이 짧고 금방 없어질 뿐이다.”⁸²⁾고 하였다.

原文의 “牝瘧”이 『醫統本』 등에 “牝瘧”으로 되어 있는데, 尤怡는 “陽氣가 痰飲으로 막혀서 밖으로 肌表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心의 사이에 潛伏된 것이다. 心은 牡藏이므로 牡瘧이라한다.”⁸³⁾고 하여 病이 心에 있고, 心은 陽藏이며, 陽은 牡이기 때문에 牡瘧이라 하였으나, 李紘은 “무릇 人身은 熱은 陽이 되고 寒은 陰이 되며, 萬物은 陽은 牡가 되고 陰은 牝이 된다. 이 瘧疾은 寒多하여 陰勝한 것이므로 牝瘧이라한다.”⁸⁴⁾고 하여 症狀의 특징이 ‘寒多’하기 때문에 牝瘧이라 하였다. 두 가지의 說에 충분한 이유가 있으나, 본 條文의 症狀의 특징이 ‘多寒’이며, 앞에서 溫瘧과 瘧瘧을 ‘但熱無寒’의 症狀特徵에 依據하여 命名한 예를 따른다면 ‘牝瘧’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思料된다.

『本草綱目』에 “蜀漆은 痰을 除去하고 瘧疾의 治療하는 功이 있다. … 生用하면 上行하여 반드

77) 李紘: 內經은 以先寒後熱者로 爲寒瘧이오 仲景은 以多寒者로 爲牝瘧이라

78) 素問·瘧論: 夏傷於暑 汗出 腠理開發 因遇淒滄之小寒 藏於腠理皮膚之中 秋傷於風 則病成矣 夫寒者 陰氣也 風者 陽氣也 先傷於寒而後傷於風 故先寒後熱 名曰溫瘧

79) 曹家達: 瘧之所以多寒者는 皮毛爲水氣所遏하여 陽氣不得宣也라 水氣留於上則浸成痰涎 故로 世俗有無痰不成瘧之說이라

80) 張璐: 積聚津液成痰是以多寒이라

81) 李紘: 雲母之根爲陽起石이라 … 性溫氣升하여 乃升發陽氣之物이오 龍骨屬陽하여 能逐陰邪而起陽氣라

82) 金匱要略: 陳紀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2, p. 153.

83) 尤怡: 陽氣爲痰飲所遏하여 不得外出肌表而但內伏心間이라 心은 牡藏也니 故로 名牡瘧이라

84) 李紘: 凡人身以熱爲陽하고 寒爲陰이오 物以陽爲牡하고 陰爲牝이라 此因寒多陰勝 故로 名牝瘧이라

시 바하게 한다.”⁸⁵⁾고 하였으니 蜀漆은 祛痰하여 瘧疾을 치료한다. 蜀漆은 常山の 峯(苗)인데 常山을 쓰지 않고 蜀漆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李紘은 “뿌리를 사용하지 않고 峯을 사용하는 것은 蜀漆의 性이 升發하여 能히 陽氣를 上部로 透達시킬 수 있는 뜻을 取한 것이다.”⁸⁶⁾고 하여 常山보다 蜀漆이 升發하는 작용이 더 낫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雲母와 龍骨에 대하여 李紘은 “雲母의 根本은 陽起石이다. … 性溫氣升하여 陽氣를 升發하고, 龍骨은 陽에 屬하여 陰邪를 몰아내고 陽氣를 興起시킨다.”⁸⁷⁾고 하여 牝瘧은 寒瘧의 一種이므로 助陽溫散시키기 위함이다.

“瘧疾이 發作하기 전에 漿水로 복용한다(未發前以漿水服)”고 하여 蜀漆散을 瘧疾이 發作하기 전에 服用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素問·刺瘧論』에 “瘧疾을 치료할 때는 發作하기 한 食頃 전쯤에 치료해야 하며 그 시간이 지나가면 치료할 時期를 놓치는 것이다.”⁸⁸⁾고 한 것을 따른 것에 근거한 것이며, 漿水로 服用하는 이유는 常山과 蜀漆은 모두 催吐作用이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약간 炒를 하거나 술에 넣고 달이면 催吐作用을 輕減시키기 때문이다.⁸⁹⁾

曹家達은 “龍骨은 牡蠣의 잘못이다. 本經에 牡蠣는 效逆을 主治하고 治痰하는 것이 神妙함이 水가 宅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으니 蜀漆散方은 오히려 風痰眩暈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上膈의 濕痰이 除去된 뒤에 陽氣가 밖으로 暢達될 수 있으나 ‘無痰不成瘧’의 말이 더욱 믿을 만하고 믿고 징협할 만한 것이 된다.”⁹⁰⁾고 하여

龍骨이 아닌 牡蠣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本草綱目』에 龍骨은 “止陰瘧”⁹¹⁾이라 하였으니 龍骨이 瘧疾을 치료하므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다만 『本草綱目』에 牡蠣를 “化痰軟堅”⁹²⁾이라 하였으니 蜀漆散이 濕痰을 除去하는 것이 주된 目的이므로 參考할만 하다.

第 6節 外臺秘要方

【原文】

牡蠣湯 治牡瘧¹⁾

牡蠣四兩煨²⁾⁽¹⁾ 麻黃四兩去節 甘草二兩³⁾ 蜀漆⁴⁾

右四味⁵⁾ 以水八升⁶⁾ 先煮蜀漆麻黃⁷⁾ 去上沫⁸⁾ 得六升⁹⁾ 內諸藥¹⁰⁾ 煮取二升¹¹⁾ 溫服一升¹²⁾ 若吐則勿更¹³⁾ 服¹⁴⁾

【校勘】

- 1) 治牡瘧: 『醫統本』·李本에는 “治牝瘧”으로 되어 있고, 尤本에는 없다.
- 2) 煨: 『外臺·卷五』에는 “熬”로 되어 있다.
- 3) 三兩: 『外臺·卷五』에는 “三兩炙”로 되어 있다.
- 4) 蜀漆: 『醫統本』에는 “蜀漆三兩”으로, 『千金·卷十』과 『外臺·卷五』에는 “蜀漆三兩若無用常山代之”로 되어 있다.

【註釋】

- (1) 煨: 煨과 같음. 광물성 한약을 300℃ 이상 되는 화로에 넣어서 속까지 벌겍게 되도록 달군 다음 꺼내서 부스러뜨리는 것을 말한다. 광물성 약재에서 結晶水를 없애기 위한 것이며, 煨을 하고 나면 유기물질이

方治은 專爲風痰眩暈而設이라 蓋上膈之濕痰去 然後에 陽氣得以外達하니 益可信無痰不成瘧之說하고 爲信而有徵矣라

91)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p. 1000.

92)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p. 1053.

85) 『本草綱目』: 有劫痰截瘧之功이라 … 生用則上行必吐라

86) 李紘: 不用根而用苗者는 取其性多升發하여 能透達陽氣於上之義也라

87) 李紘: 雲母之根爲陽起石이라 … 性溫氣升하여 乃升發陽氣之物이오 龍骨屬陽하여 能逐陰邪而起陽氣라

88) 『素問·刺瘧論』: 凡治瘧 先發如食頃 乃可以治 過之則失時也

89) 『金匱要略』: 陳紀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2, p. 153.

90) 曹家達: 龍骨爲牡蠣之誤이라 本經에 牡蠣主治效逆하고 竝言治痰如神이 水歸其宅이라하니 可見蜀漆散

다서 없어지고 순수한 無機物만 남게 되므로 치료효능을 높일 수 있고 또 收斂作用이 세진다. (*煅: 熟也, 불사를 하 *煅: 鍛也, 쇠붙일 단)

(2) 更: 再也, 다시 갠

【國譯】

牡蠣湯은 牡蠣을 치료한다.

牡蠣四兩(구운 것) 麻黃四兩(마디를 없앤다)

甘草二兩 蜀漆三兩

위의 네 가지를 물 八升으로 먼저 蜀漆과 麻黃을 달여서 위에 뜬 거품을 없애서 六升을 만들고 나머지 藥을 넣고 二升이 되도록 달여서 一升씩 溫服한다. 만약 吐하면 다시 服用하지 않는다.

【考察】

尤怡는 “詳考하건대 『外臺秘要』의 세 治方은 宋의 孫奇 등이 附錄으로 실어 놓은 것이다.”⁹³⁾ 고 하였는데 牡蠣湯은 『外臺秘要·卷五』의 「牝瘧方二首」에, 柴胡去半夏加栝蔞湯은 『外臺秘要·卷五』의 「療瘧方二十一首」에, 柴胡桂薑湯은 『外臺秘要·卷二』의 「傷寒小便不利方九首」에 있다.

牡蠣湯에 대하여 尤怡는 “蜀漆散과 같은 뜻이나 外攻하는 힘이 비교적 猛烈하다.”⁹⁴⁾ 고 하였는데 李는 “牡蠣湯證은 蜀漆散證과 더불어 寒多熱少하고 濕痰이 內停된 牝瘧을 치료한다. 用藥이 모두 發作하기 前에 服用하는데, 다만 牡蠣湯은 表證이 있고, 蜀漆散은 表證이 없다.”⁹⁵⁾ 고 하였으며, 또한 “本方은 化痰截瘧하고 祛寒散邪의 效能이 있다. 牡蠣으로써 處方名을 삼았지만 甘草와 蜀漆로 化痰截瘧하는 主藥을 삼았다. 牡蠣는 鹹寒하여 軟堅散結消痰하고 아울러 陰氣가 耗散된 것을 收斂하고, 麻黃은 辛溫하여 散寒하고 陽氣를 發越하니 牡蠣와 麻黃이 배합되어 하나는 收斂하

고 하나는 發散하여 邪氣를 除去하면서 正氣는 損傷되지 않는다. 甘草는 모든 藥을 調和시키니 甘草를 배합하면 截瘧散邪의 效能을 갖는다. 本方은 痰濕이 內結된 것과 表寒이 있는 瘧病을 치료하여 瘧疾이 惡寒은 많고 發熱은 적은 것과 頭痛·鼻塞·咳嗽 등의 症狀이 있는 것에 사용한다.”⁹⁶⁾ 고 하였다.

또한 『外臺秘要』에는 海藻와 菘菜를 忌하라고 하였다.⁹⁷⁾

【原文】

柴胡去半夏加栝蔞湯¹⁾ 治瘧病發渴者하고 亦治勞瘧¹⁾이라

柴胡八兩 人參三兩 黃芩三兩 甘草三兩²⁾ 栝蔞根四兩 生姜二兩 大棗十二枚³⁾

右七味를 以水一斗二升으로 煮取六升하야 去滓하고 再煎取三升하야 溫服一升하야 三服이라

【校勘】

- 1) 柴胡去半夏加栝蔞: 『外臺·卷五』에는 “小柴胡去半夏加栝蔞”로 되어 있다.
- 2) 甘草三兩: 『外臺·卷五』에는 “甘草三兩炙”로 되어 있다.
- 3) 十二枚: 『外臺·卷五』에는 “十二枚擘”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勞瘧: 慢性瘧疾을 말한다. 惡寒과 發熱은 심하지 않고 낮이나 밤에 발작하는데 조금만 피곤하여도 이내 발작하며 氣虛로 땀이 많이 나고 식욕이 부진하다.

【國譯】

柴胡去半夏加栝蔞湯은 瘧疾의 口渴과 勞瘧을

93) 尤怡: 按건대 此系宋孫奇等所附라

94) 尤怡: 盖亦蜀漆散之意니 而外攻之力較猛矣라

95)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p. 126.

96)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p. 125.

97) 王燾: 外臺秘要,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64.

치료한다.

柴胡八兩 人參三兩 黃芩三兩 甘草三兩 栝蒌根四兩 生姜二兩 大棗十二枚

위의 일곱 가지 약물을 물 一斗二升으로 끓여서 六升이 되도록 하여 찌꺼기를 없애고 다시 달여서 三升을 얻어서 一升씩 溫服하는데 세 번 服用한다.

【考察】

本方は 小柴胡湯에 半夏를 栝蒌根으로 바꾼 것이다. 徐彬은 “瘧邪가 半表半裏의 사이에 있어 陰으로 들어가 다투면 惡寒하고 陽로 나와 다투면 發熱하는 것은 少陽의 象이다. 少陽이면서 他經의 證을 兼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他經이라고는 하지만 少陽과 아주 관련이 없으면 瘧疾이 되지 않기 때문에 小柴胡湯이 少陽의 主方이 된다. 口渴하기 때문에 半夏를 栝蒌根으로 바꾸었으니 또한 少陽을 治療하는 法을 이룬다. 攻法과 補法을 兼하여 施行하므로 또한 勞瘧을 治療한다.”⁹⁸⁾고 하였고, 吳昆은 “方中에 柴胡와 黃芩이 있어서 少陽의 邪熱을 清熱할 수 있고; 栝蒌根이 있어서 生津養筋할 수 있고; 人參과 甘草가 있어서 補虛補勞할 수 있고; 大棗와 生薑이 있어서 調榮益胃할 수 있다.”⁹⁹⁾고 하여 勞瘧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外臺秘要』에는 海藻와 菘菜를 忌하라고 하였다.¹⁰⁰⁾

【原文】

柴胡桂姜湯¹⁾ 治瘧 寒多微有熱^{하오} 或但寒不熱^{하니} 服劑如神²⁾이라

98) 徐彬: 瘧邪在半表半裏之間하야 入與陰爭則寒하고 出於陽爭則熱은 此少陽之象也라 是謂少陽而兼他經之證則有之오 謂他經而全不涉少陽 則不成其爲瘧矣니 所以小柴胡爲少陽主方이라 渴易半夏加栝蒌根은 亦治少陽成法也라 攻補兼施 故로 亦主勞瘧이라

99) 吳昆: 方中有柴胡黃芩하니 可以清少陽之邪熱이오 有栝蒌根하니 可以生津養筋이오 有人參甘草하니 可以補虛補勞오 有大棗生薑하니 可以調榮益胃라

100) 王濤: 外臺秘要,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50.

柴胡半斤 桂枝三兩去皮³⁾ 乾姜二兩 黃芩三兩 栝蒌根四兩 牡蠣三兩⁴⁾煨 甘草三兩炙

右七味를 以水一斗二升으로 煮取六升하야 去滓하고 再煎取三升하야 溫服一升호데 日三服이라 初服에 微煩이나 復服汗出하면 頓¹⁾愈⁵⁾라

【校勘】

- 1) 柴胡桂姜湯: 『外臺·卷二』에는 “小柴胡桂薑湯”으로, 『三因方·卷六』에는 “柴胡桂枝乾薑湯”으로 되어 있다.
- 2) 服劑如神: 尤本에는 “服一劑如神”으로 되어 있다.
- 3) 桂枝三兩去皮: 『外臺·卷二』에는 “桂心三兩”으로 되어 있다.
- 4) 三兩: 『外臺·卷二』와 醫統本에는 “二兩”으로 되어 있다.
- 5) 汗出頓愈: 趙本에는 “汗出傾愈”로, 李本에는 “汗出便愈”로 되어 있다.

【註釋】

(1) 頓: 遽也, 갑자기 돈

【國譯】

柴胡桂姜湯은 瘧疾에 惡寒이 많고 약간의 發熱이 있는 것과 혹은 惡寒이 많고 發熱이 없는 것을 치료하니 一劑를 服用하여도 效果가 神妙하다.

柴胡半斤 桂枝三兩(겉질을 벗긴다) 乾姜二兩 黃芩三兩 栝蒌根四兩 牡蠣三兩(불에 굽는다) 甘草三兩(구운 것)

위의 일곱 가지를 물 水一斗二升으로 六升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다시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一升씩 溫服하는데 하루에 세 번 服用한다. 처음 服用하면 약간 煩燥症이 나타나 다시 복용하여 땀이 나면 바로 낫는다.

【考察】

本方に 대하여 陳念祖는 “柴胡로 君藥을 삼아

鬱伏된 陽邪를 發散시키고, 黃芩으로 佐藥함을 삼아 半表半裏의 熱을 淸熱하고, 桂枝와 乾薑은 肌表의 痺證을 疏通시키고, 枳實根과 牡蠣은 除留熱하며 消瘀血하고, 甘草는 모든 藥을 調和하고 調陰陽한다. 땀이 나면 막혔던 邪氣가 흩어지고 瘧熱이 運行되어 病이 낫는다.”¹⁰¹⁾고 설명하였다.

또한 『外臺秘要』에는 生葱과 海藻와 菘菜를 用하라고 하였다.¹⁰²⁾

IV. 總括 및 結論

瘧疾에 포함되는 말라리아(malaria)는 열원충 속(genus Plasmodium)의 열대열원충(*P. falciparum*), 삼일열원충(*P. vivax*), 난형열원충(*P. ovale*), 사일열원충(*P. malariae*)의 4종에 의하여 발생된다.

말라리아의 발병기전은 사람의 감염은 암컷 얼룩 날개모기가 흡혈할 때 모기의 침새에 있던 열원충의 포자소체(sporozoite)가 몸으로 들어와 시작된다. 이들은 혈류를 타고 재빨리 간실질세포 안으로 들어가 무성생식기(period of asexual reproduction)를 시작한다. 간내(intrahepatic) 또는 전적혈구(pre-erythrocytic) 분열생식(schizogony 또는 merogony)이라고 부르는 증식 과정을 통해 한 개의 포자소체는 10,000개에서 30,000개 이상의 분열소체(merozoites)를 자손으로 만들게 된다. 팽창된 간세포는 결국에는 터져, 운동성이 있는 분열소체를 혈류로 내보내게 된다. 이때부터 감염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열원충은 48시간 주기인 적혈구내 생활사가 끝날 때까지 거의 모든 혈액소를 소모하며, 적혈구 용적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의 크기로 자란다. 여러 번의 핵분열이 일어나고 적혈구가 터지면서 6개에서 30개의 분열소체를 내

놓는다. 분열소체 각각은 새로운 적혈구에 들어가 이 같은 생활사를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무성생식기 열원충이 적혈구를 침입하고 파괴하는 직접적인 영향과 이에 대한 숙주의 반응이 말라리아가 생기는 원인이다.

임상소견에 있어서, 첫번째 나타나는 증상들은 비특이적인데, 두통, 피곤함, 복부불편감, 근육통 등이다. 그 뒤 열이 발생하므로, 輕症의 바이러스 질환의 증상과 매우 흡사하다. 어떤 경우에는 두통, 흉통, 복통, 관절통, 근육통, 설사 등이 두드러져 다른 질병을 의심하게 될 수 있다. 말라리아에서 두통이 매우 심할 수도 있지만, 수막염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경부경직, 눈부심 등은 없다. 근육통이 두드러질 수 있지만, 탕기열에서와 같이 심하지는 않으며, 렘토스피라병이나 발진티푸스에서와 같이 근육에 압통은 없다. 오심, 구토, 기립성 저혈압은 흔하다. 급격히 상승하는 고열, 오한, 경직 등이 주기적인 간격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말라리아 열박작(malarial paroxysm)은 삼일열말라리아와 난형열말라리아를 의심하게 한다. 초기의 발열은 불규칙적이다. 번역이 없는 성인이나 소아에 있어서 열은 종종 40℃ 이상으로 오를 수 있고, 빈맥과 때때로 심방을 동반한다.¹⁰³⁾

瘧疾을 後代의 『千金方』에는 肝瘧·心瘧·脾瘧·肺瘧·腎瘧으로 구분하였는데 肝瘧은 안색이 파랗고 한숨을 쉬며 그 모습이 곧 죽을 사람처럼 보이니 烏梅丸¹⁰⁴⁾으로 治療하고, 心瘧은 心煩이甚하여 찬물을 마시려고 하나 오히려 惡寒이 심하고 發熱은 甚하지 않으며, 脾瘧은 惡寒이 있고 飢飢가 아프며 發熱하면 腸鳴이 있게 되고 腸鳴

103) E. Braunwald 외.; Harison's 내과학, 대한내과학회 해리슨내과학 편집위원회, 도서출판MIP, 서울, 2003, pp. 1237~1240.

104) 烏梅丸: 烏梅肉 蜀漆 蟅甲 萎蕤 知母 苦參各一兩 恒山一兩半 石膏二兩 甘草 細辛各十八銖 香豉一合 위의 11가지를 가루로 내어 꿀에 반죽하여 梧子大크기로 만든다. 술에 19丸씩 하루에 두 번 복용하고, 湯으로 하여 마셔도 효과가 있다. 孫思邈 著·李景榮 등 校釋·備急千金要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p. 245.

101) 陳修園: 是用柴胡爲君하여 發其鬱伏之陽이오 黃芩爲佐하여 淸其半裏之熱이오 桂枝乾薑은 所以通肌表之痺이오 枳實根牡蠣는 除留熱消瘀血이오 甘草는 和諸藥調陰陽也라 得汗則痺邪散瘧熱行而病愈矣라

102) 王燾: 外臺秘要,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92.

이 그치면 땀이나니 恒山丸¹⁰⁵)으로 主治하였고, 肺瘧은 가슴부위에 惡寒이 들고 惡寒이 發熱보다 甚하여 發熱하는 中間에 汗을 본 것처럼 잘 놀라니 恒山湯¹⁰⁶)으로 主治하였고, 腎瘧은 오싹오싹하게 惡寒이 있고 허리와 등골뼈가 아파서 잘 돌리지 못하고 大便을 보기가 어려우며 눈이 침침하여 잘 보이지 않고 손발이 차니 恒山湯¹⁰⁷)으로 主治하였는데 以上の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3】과 같으며¹⁰⁸), 症狀은 『素問·刺瘧論』의 글을 引用하였다.

【표 3】『千金方』의 分類와 症狀 및 治方

分類	症 狀	治 方
肝瘧	令人色蒼蒼然 太息 其狀若死	烏梅丸
心瘧	令人心煩甚 欲得清水 反寒多不甚熱	
脾瘧	令人寒 腹中痛 熱則腸中鳴 鳴已汗出	恒山丸
肺瘧	令人心寒 寒甚則熱 熱間善驚 如有所見者	恒山湯
腎瘧	令人痿痺然 腰脊痛宛轉 大便難 目眴眴然 身掉不定 手足寒	恒山湯

『醫宗必讀』에는 風瘧·溫瘧·寒瘧·瘧瘧·濕瘧·牝瘧·食瘧·癘瘧·鬼瘧·勞瘧·瘧母로 구분하였는데, 風瘧은 惡寒하고 自汗하고 煩燥하여 躁動하고 머리가 아프고 반드시 먼저 發熱한 뒤에 惡寒하니 柴胡·蘇葉·細辛·白芷·羌活·生薑 등으로 治療하였고,

溫瘧은 먼저 發熱하고 뒤에 惡寒하니 發熱이 많은 경우에는 小柴胡湯으로, 惡寒이 많은 경우에는 小柴胡湯에 桂枝를 加하여 主治하였고, 寒瘧은 먼저 惡寒하고 뒤에 發熱하니 羌活·紫蘇·生薑 등을 사용한 뒤에 이어서 小柴胡湯으로 治療하였고, 瘧瘧은 少氣하고 心煩하고 손발에 熱이 나고 嘔吐를 하고 發熱만 있고 惡寒하지 않으니 한여름에 발생한 경우에는 人蔘白虎湯으로, 서늘한 가을에 발생한 경우에는 小柴胡湯으로 治療하였고, 濕瘧은 몸이 무겁고 아프며 嘔逆하고 脹滿하니 芎藭湯에 羌活·紫蘇를 加味하여 치료하였고, 牝瘧은 惡寒만 하고 發熱이 없으니 柴胡薑桂湯으로 치료하였고, 食瘧은 배는 고프는데 먹을 수 없고 먹으면 脹滿하고 嘔吐하고 배가 아프니 靑皮·草果·肉豆蔻·砂仁·神麴·山楂 등으로 치료하였고, 癘瘧은 발작할 때 정신이 혼미하고 답답하며 심하면 미쳐서 妄靈되고 말을 할 수 없으니 涼膈散 또는 小柴胡湯에 大黃·木香을 加味하여 치료하였고, 鬼瘧은 非正常的인 氣候의 변화로 발생한 邪氣에 의한 것이어야 함된 鬼瘧이라 하여 平胃散에 雄黃·桃仁을 加味하여 치료하였고, 勞瘧은 평소에 虛弱한 證이 있거나 瘧疾이 勞瘧이 되어서 발생하니 十全大補湯을 사용하되 發熱이 있는 사람은 肉桂를 빼고서 치료하였고, 瘧母는 脇下에 積塊가 있으니 六君子湯에 木香·肉桂·蓬朮·鱉甲을 加味하여 치료하였는데 以上の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¹⁰⁹⁾

【표 4】『醫宗必讀』의 分類와 症狀 및 治方

分類	症 狀	治 方
風瘧	惡寒自汗 煩躁頭疼 必先熱後寒	柴胡蘇葉細辛白芷羌活生薑之類
溫瘧	先熱後寒	熱多者 小柴胡湯 寒多者 小柴胡湯加桂
寒瘧	先寒後熱	羌活紫蘇生薑之類 次用小柴胡湯
瘧瘧	少氣煩冤 手足熱而嘔 但熱而不寒	盛暑發者 人蔘白虎湯 秋涼發者 小柴胡湯

105) 恒山丸: 恒山 知母 甘草 大黃各十八銖 麻黃一兩 위의 5가지를 가루로 내어 꿀에 반죽한다. 食前에 梧子大크기로 5丸씩 하루에 두 번 복용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效가 있을 때 까지 복용한다. 上揭書 p. 243.

106) 恒山湯: 恒山三兩 秣米二百二十粒 甘草半兩 위의 3가지를 조각내어 물 九升으로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세 번에 나누어 복용하되 발작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두 복용한다. 上揭書 p. 246.

107) 恒山湯: 恒山三兩 烏梅三七枚 香豉八合 竹葉一升 蔥白一握 위의 5가지를 切片을 내어 물 九升으로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세 번에 나누어 복용하되 발작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두 복용한다. 上揭書 p. 246.

108)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pp. 252, 286, 326, 367, 413.

109) 李仲梓: 醫宗必讀,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pp. 400~402.

濕瘡	身體重而痛 嘔逆脹滿	胃苓湯加羌活紫蘇
牝瘡	但寒而不熱	柴胡薑桂湯
食瘡	飢而不能食 食則脹滿 嘔吐腹痛	青皮草果豆蔻砂仁神麴山查之類
癰瘡	發時迷悶 甚則狂妄 亦有不能言者	涼膈散 或小柴胡加大黃木香
勞瘡	或素有弱證 或因病成勞	十全大補湯 有熱者去桂
瘡母	脇下有塊	六君子湯 加木香肉桂蓬朮鱉甲
鬼瘡	惟時行不正之氣 眞鬼瘡也	平胃散 加雄黃桃仁

『東醫寶鑑』에는 風瘡·寒瘡·熱瘡·濕瘡·痰瘡·食瘡·勞瘡·鬼瘡·疫瘡·瘰癧으로 구분하였는데, 風瘡은 먼저 發熱한 뒤에 惡寒하니 麻黃白朮湯(110)을 쓰되 無汗하면 散邪湯(111)으로, 有汗하면 正氣湯(112)으로 主治하였고, 寒瘡은 惡寒이 많고 發熱은 적으니 人蔘養胃湯(113)·交解飲(114)·果附湯(115)·草果飲(116)·柴胡桂薑湯(117)으로 치료하였고, 熱

110) 麻黃白朮湯: 麻黃 桂皮 青皮 陳皮 川芎 白芷 半夏 鞠 紫蘇葉 赤茯苓 白朮 桔梗 細辛 檳榔 甘草各七分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許俊: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3. p. 518.

111) 散邪湯: 川芎 白芷 麻黃 白芍藥 防風 荆芥 紫蘇葉 羌活各一錢 甘草五分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生薑 세 쪽과 蔥白 세 뿌리를 넣고 달여서 하룻밤 지난 뒤에 이른 아침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上揭書 p. 520.

112) 正氣湯: 柴胡 前胡 川芎 白芷 半夏 麥門冬 檳榔 草果 青皮 赤茯苓各一錢 桂枝 甘草各五分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生薑 세 쪽, 대추 두 개를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520.

113) 人蔘養胃湯: 蒼朮一錢半 陳皮 厚朴 半夏製各一錢二分 茯苓 藿香各一錢 人蔘 草果 甘草炙各五分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生薑 세 쪽, 대추 두 개, 烏梅 한 개를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하는데 땀을 조금 나게 하면 저절로 낫는다. 上揭書 p. 385.

114) 交解飲: 雙解飲자와 같음. 肉豆蔻 草豆蔻各二箇一箇裂一箇生 厚朴二寸一寸薑汁浸炙 一寸生用 甘草大者二兩 一半炙一半生 生薑二塊 一握一生 물에 달여서 빈속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上揭書 p. 521.

115) 果附湯: 草果 附子炮各二錢半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生薑 일곱 쪽, 대추 두 개를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520.

116) 草果飲: 草果 白芷 良薑 青皮 川芎 紫蘇葉 甘草各

瘡은 癰瘡 또는 暑瘡이라 하여 人蔘白虎湯(118)·柴苓湯(119)·柴胡知母湯(120)·爭功散(121)·龍虎湯(122)으로 치료하였고, 濕瘡은 惡寒과 發熱이 비슷하고 小便을 잘 보지 못하니 五苓散(123)에 蒼朮·川芎·羌活을 가하여 치료하였고, 痰瘡은 머리가 아프고 肌肉이 떨리고 먹은 음식물과 기품을 吐하고甚하면 精神이 昏迷하여 卒倒하니 柴陳湯(124)에 草果를 加味하거나 四獸飲(125)·冷附湯(126)·露薑飲(127)主治

一錢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520.

117) 柴胡桂薑湯: 柴胡三錢 桂枝 牡蠣各一錢半 天花粉 黃芩各一錢 乾薑 甘草各八分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520.

118) 人蔘白虎湯: 石膏五錢 知母二錢 甘草七分 粳米半合 人蔘一錢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381.

119) 柴苓湯: 柴胡一錢六分 澤瀉一錢三分 白朮 猪苓 赤茯苓各七分半 半夏七分 黃芩 人蔘 甘草各六分 桂心三分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生薑 세 쪽을 넣고 물에 달여서 따뜻하게 복용한다. 上揭書 p. 397.

120) 柴胡知母湯: 柴胡 知母各一錢半 蒼朮 黃芩 乾葛 陳皮 半夏 川芎各一錢 甘草炙七分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生薑 세 쪽, 烏梅 두 개를 넣고 물에 달여서 이른 새벽에 복용하고 또 午前에 다시 복용한다. 上揭書 p. 520.

121) 爭功散: 知母 貝母 柴胡 常山 梔子 檳榔 地骨皮 甘草各一錢 蟬退二七箇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복숭아나무와 버드나무 가지 5寸 크기를 넣고 달여서 복용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길가에 있는 칩덩굴 5寸 크기를 넣고 같은 방법으로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520.

122) 龍虎湯: 石膏二錢半 柴胡 黃連各一錢半 黃芩 知母 黃柏各一錢 梔子八分 半夏七分 粳米百粒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生薑 세 쪽, 대추 두 개를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520.

123) 五苓散: 澤瀉二錢半 赤茯苓 白朮 猪苓各一錢半 肉桂五分 위의 약물을 가루를 내어 2錢을 끓인 물에 복용하거나 썰어서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395.

124) 柴陳湯: 柴胡 半夏各二錢 人蔘 黃芩 陳皮 赤茯苓各一錢 甘草五分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生薑 세 쪽, 대추 두 개를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520.

125) 四獸飲: 人蔘 白朮 白茯苓 陳皮 半夏 草果 甘草 烏梅 生薑 大棗各一錢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약간의 소금과 함께 버무린 다음 한 食頃 정도 지나서 皮紙에 싸서 물에 담갔다고 옛날에 들어 고

하였고, 食滯은 惡寒과 發熱이 번갈아 발작하고 배가 고프나 먹지 못하고 먹으면 痰을 吐하니 平陳湯¹²⁸⁾에 枳實·白朮·山查子·神麴·靑皮를 加味하거나 淸脾飲¹²⁹⁾·小淸脾飲¹³⁰⁾·二陳湯加靑皮檳榔縮社白豆蔻를 加味하여 치료하였고, 勞瘵은 곧 久瘵이며 惡寒發熱이 微微하고 惡寒하는 가운데 發熱하고 發熱하는 가운데 惡寒하고 조금만 勞役하면 다시 발작하여 여러 해 동안 낫지 않으니 芎歸繫甲散¹³¹⁾·常山飲¹³²⁾·五勞元¹³³⁾·六和湯¹³⁴⁾으로 치

소한 냄새가 나도록 구워 꺼낸다. 이것을 물에 달아서 먹는데 발작하기 전에 이어서 몇 점 쓰면 곧 효과가 있다. 上揭書 p. 520.

126) 冷附湯: 大附子一箇 위의 약물을 切片하여 2첩으로 나눈다. 각각의 1첩마다 生薑 열 쪽을 넣고 물에 달여 찌꺼기를 버린 다음 火鬚말 이슬을 맞춰 식혀서 새벽에 차갑게 해서 복용한다. 上揭書 p. 520.

127) 露薑飲: 生薑四兩 위의 약물을 껍질째 짓찧어 죽반을 발작하기 전날 밤에 醞酵으로 덮어서 火鬚말 두었다가 새벽에 위에 떠있는 맑은 부분을 마신다. 간혹 痰을 吐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上揭書 p. 520.

128) 平陳湯: 蒼朮 半夏各二錢 厚朴 陳皮 赤茯苓各一錢二分半 甘草七分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生薑 세 쪽, 대추 두 개를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520.

129) 淸脾飲: 柴胡 半夏 黃芩 草果 白朮 赤茯苓 厚朴 靑朮各一錢 甘草五分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生薑 세 쪽, 대추 두 개를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520.

130) 小淸脾飲: 厚朴二錢 烏梅肉 半夏 靑皮 良薑各一錢 草果 甘草各五分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生薑 세 쪽, 대추 두 개를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520.

131) 芎歸繫甲散: 繫甲二錢 川芎 當歸 赤茯苓 赤芍藥 半夏 陳皮 靑皮各一錢 烏梅一箇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生薑 다섯 쪽, 대추 두 개를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521.

132) 常山飲: 常山 知母 草果各一錢半 良薑一錢 烏梅肉 甘草各五分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生薑 다섯 쪽, 대추 두 개를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521.

133) 五勞元: 常山三兩半 桃仁一兩二錢 辣桂七錢半 淡朮三兩半 烏梅肉二兩半 위의 약물을 火鬚말에 말려서 가루를 내어 꿀에 반죽하여 梧子大 크기로 만들어 빈속에 따뜻한 술로 30丸 내지 40丸씩 복용한다. 上揭書 p. 521.

134) 六和湯: 常山二錢 知母 貝母 人蔘 草果 白芷 烏梅 檳榔 柴胡各一錢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료하였고, 鬼瘵은 惡寒發熱이 매일 發作하고 나쁜 꿈을 꾸고 恐怖感이 잘 생기니 辟邪丹¹³⁵⁾·雄朱丹¹³⁶⁾으로 치료하였고, 疫瘵은 어른과 아이의 증상이 비슷하고 非正常的인 氣候의 변화로 발생된 邪氣가 침범하여 惡寒發熱로 변하니 不換金正氣散¹³⁷⁾으로 치료하였고, 癰瘵은 정신이 昏迷하고 發狂하고 간혹 목소리가 쉬고 갑자기 惡寒하다가 갑자기 發熱하고 갑자기 발작하다가 갑자기 그치니 雙解飲子·地龍丹¹³⁸⁾으로 主治하였는데 以上の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¹³⁹⁾

【표 5】『東醫寶鑑』의 分類와 症狀 및 治方

分類	症狀	治方
風瘵	先熱後寒	麻黃白朮湯 無汗則宜散邪湯 有汗則宜正氣湯
寒瘵	寒多熱少	人蔘養胃湯 交解飲 果附湯 草果飲 柴胡桂薑湯
熱瘵	一名熱瘵 亦曰暑瘵	人蔘白虎湯 柴苓湯 柴胡知母湯 爭功散 龍虎湯

生薑 세 쪽, 대추 두 개를 넣고 물과 술을 절반씩 넣고 달여서 火鬚말 이슬을 맞춰서 발작하는 날에 입하여 복용한다. 上揭書 p. 521.

135) 辟邪丹: 綠豆 雄黑豆各四十九粒 信砒半錢 黃丹一錢 朱砂二錢 위의 약물을 가루로 내어 꿀로 반죽하여 30알을 만들고 매 한 알마다 東南쪽으로 뿔은 북송아 나뭇가지 7개를 갈아서 즙을 내서 깨끗한 물에 타서 이른 아침 해가 뜰 때 동쪽을 향하고서 삼킨다. 虛弱한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한다. 上揭書 p. 521.

136) 雄朱丹: 大黑豆四十九粒 信砒末一錢 위의 약물을 端午에 새벽부터 巳時까지 찬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겨서 火鬚말에 말려서 잔고 信砒를 넣고 다시 갈아서 밀가루로 끓인 꿀에 반죽하여 丸을 만드는데 젊고 건강한 사람은 梧子大, 老人은 黃豆, 小兒은 綠豆 크기로 만들어 雄黃과 朱砂를 입혀서 火鬚말에 말려서 쓴다. 발작하는 날 아침에 동쪽을 향하고 우물물에 1알씩 먹는다. 上揭書 p. 521.

137) 不換金正氣散: 蒼朮二錢 厚朴 陳皮 藿香 半夏 甘草各一錢 위의 약물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生薑 세 쪽, 대추 두 개를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386.

138) 地龍飲: 生地龍大者三條 위의 약물을 곱게 갈아 生薑汁과 薄荷汁과 약간의 꿀을 넣고 재로 길어온 물에 타서 먹는다. 熱이 심하면 龍腦를 조금 넣어서 복용한다. 上揭書 p. 521.

139) 許俊: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3, p. 519.

濕瘧	寒熱相半 小便不利	五苓散 加蒼朮川芎羌活
痰瘧	頭痛肉瞤 吐食嘔沫 甚則昏迷卒倒	柴陳湯 加草果 四獸飲 冷附湯 露薑飲
食瘧	寒熱交併 苦飢而不能食 食則吐痰	平陳湯加枳實白朮山查子神麴 青皮 清脾飲 小清脾飲 二陳湯加青皮檳榔縮社白豆蔻
勞瘧	即久瘧也 寒熱微微 寒中有熱 熱中有寒 小勞復來 經年不差	芎歸鱉甲散 常山飲 五勞元 六和湯
鬼瘧	寒熱日作 夢寐不祥 多生恐怖	辟邪丹 雄朱丹
疫瘧	一方長幼相似 或染時行 變成寒熱	不換金正氣散
瘧瘧	令人迷困發狂 或啞 乍寒乍熱 乍有乍無	雙解飲子 地龍飲

『中醫臨床大全』에는 正瘧·溫瘧·寒瘧·熱瘧·寒瘧·勞瘧으로 分類하였는데, 正瘧은 처음 발작할 때 몸이 시리고 아프며 추위를 싫어하고 몸을 떨며 惡寒이 그치면 全身에 壯熱, 口渴, 心煩, 面紅, 頭痛한 뒤에 땀이 나면서 熱이 떨어지고 惡寒發熱이 그쳐서 모든 증상이 없어진 것 같고 단지 精神이 피곤하고 몸에 힘이 없는 것을 느낄 뿐이니 少陽을 和解하고(和解少陽) 解表하여 邪氣를 몰아내는(解表達邪) 治法으로 輕症인 경우에는 正柴胡飲¹⁴⁰⁾으로, 中症인 경우에는 小柴胡湯으로, 重症인 경우에는 清脾飲으로 치료하였다. 溫瘧은 正瘧과 비슷하지만 오직 發熱이 많고 惡寒은 적으며 혹은 發熱만 있고 惡寒이 없으며 몸이 숫처럼 뜨겁고 손발이 불로 지지는 듯 하고 땀이 나고 숨이 거칠고 때때로 嘔吐를 하려고 하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大便은 秘結하고 小便赤하고 머리가 아프고 骨節煩疼하니 清熱하고 邪氣를 몰아내는(清熱達邪) 治法으로 輕症인 경우에는 白虎加桂枝湯으로, 中症과 重症인 경우에는 白虎湯과 小柴胡湯을 合하여 치료하였고, 寒瘧은 正瘧과 相似하지만 오직 惡寒이 많고 發熱은 적으며 혹은 惡寒하기만 하고 發熱하지 않으며 목이 마르지

140) 正柴胡飲: 柴胡一二三錢 防風一錢 陳皮一錢半 芍藥二錢 甘草一錢 生薑三五片 물 한 사발 반에 넣고七分이 되도록 달여서 食間에 뜨겁게 복용한다.
張介賓: 景岳全書, 정담, 서울, 1999. p. 1079.

않고 胸脇痞滿하고 吐하려고 하나 吐하지 못하고 정신이 피곤하고 손발에 힘이 없으니 少陽을 和解(和解少陽)하고 辛溫한 藥物로 邪氣를 몰아내는(辛溫達邪) 治法으로 輕症인 경우에는 柴胡桂薑湯으로, 中症인 경우에는 理中湯과 常山草果飲을 合하고, 重症인 경우에는 附子理中湯과 蜀漆散을 合하여 치료하였고, 熱瘧은 갑자기 惡寒하다가 갑자기 發熱하고 發熱이 심하고 惡寒은 가벼우며 간혹 壯熱이 나고 惡寒하지 않고 高熱이 持續되어 떨어지지 않고 땀이 나도 시원하지 않으며 面目赤하고 心煩과 渴症으로 물을 마시려고 하고 머리가 쪼개지듯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껍고 혹은 목소리가 쉬어서 말을 할 수 없고 煩躁하고 神昏譫語하며 때로 癡癎이 일어나기도 하며 小便熱赤하고 大便秘結하니 清熱解毒하고 穢濁한 것을 없애서 熱瘧을 除去하는(辟穢除瘧) 治法으로 輕症·中症인 경우에는 清瘧湯¹⁴¹⁾으로, 重症인 경우에는 清營湯¹⁴²⁾과 紫雪丹을 合하여 치료하였고, 寒瘧은 갑자기 惡寒하다가 갑자기 發熱하며 惡寒은 甚하고 發熱은 媚藥하고 惡寒으로 몸을 떨기도 하고 惡寒하기만 하고 發熱하지는 않으며 甚하면 정신이 흐리고 말을 하지 못하니 芳香性이 있는 藥物으로써 穢濁한 것을 없애고(芳香化濁) 穢濁한 것을 없애고 理氣하는(辟穢理氣) 治法으로 輕症·中症인 경우에는 加味不換金正氣散으로, 重症인 경우에는 加味不換金正氣散과 蘇合香丸을 合하여 치료하였고, 勞瘧은 瘧疾이 오래도록 낫지 않고 조금만 勞役을 하면 발작하고 惡寒發熱이 가끔 발작하고 몸이 피곤하고 힘이 없으며 面色이 萎黃하고 살이 빠지고 頭目이 眩暈하고 음식을 조금 밖에 먹지 못하고 自汗

141) 清瘧湯: 青蒿 柴胡 茯苓 知母 陳皮 半夏 黃芩 黃連 枳實 竹茹 常山 滑石 朱砂 甘草
楊思澍·張樹生·傅景華: 中醫臨床大全,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91. p. 62.

142) 清營湯: 犀角 生地黃 玄麥 竹葉心 金銀花 連翹 黃連 丹蔘 脈門冬 물 여덟 잔으로 세 잔이 되도록 달여서 하루 세 차례 복용한다.
楊思澍·張樹生·傅景華: 中醫臨床大全,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91. p. 62.

이 나며 혹脇下에痞塊가 있어서 문질러보면 알 수 있으니正氣를補益하고(補益正氣)營衛를調和하는(調和營衛)治法으로輕症인 경우에는何人飲¹⁴³⁾으로,中症인 경우에는四獸飲으로,重症인 경우에는大補元煎¹⁴⁴⁾으로 치료하였다.¹⁴⁵⁾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표 6】과 같다.

【표 6】『中醫臨床大全』의分類와 症狀 및 治方

	主症	治法	治方
正邪	初起肢體酸楚 畏寒戰慄 寒罷則一身壯熱 口渴心煩 面紅頭暈 而後汗出熱退身涼 寒熱休止 諸證若失 唯覺神疲乏力	和解少陽 解表達邪	輕症 正柴胡飲 中症 小柴胡湯 重症 清脾飲
溫邪	發作經過與正邪相似 唯熱多寒少 或但熱不寒 體若燔炭 手足加烙 汗出氣粗 時時欲嘔 口渴引飲 便秘 尿赤 頭痛 骨節煩疼	清熱達邪	輕症 白虎加桂枝湯 中症·重症 白虎湯合小柴胡湯
寒邪	發作經過與正邪相似 唯寒多熱少 或但寒不熱 口不渴 胸脇痞滿 欲吐不吐 神疲肢倦	和解少陽 辛溫達邪	輕症 柴胡桂薑湯 中症 理中湯合常山草果飲 重症 附子理中湯合蜀漆散
熱瘧	乍寒乍熱 熱重寒輕 或壯熱不寒 高熱持續不退 汗出不暢 面目紅赤 煩渴欲飲 頭痛如劈 胸悶嘔惡 或聲啞不能言 煩躁 神昏譫語 時抽搐 小便熱赤 大便秘結 或不爽	清熱解毒 辟穢除瘴	輕症·重症 清瘧湯 重症 清營湯合紫雪丹

143) 何人飲: 何首烏自三錢以至一兩 當歸二三錢 人參三五錢 陳皮二三錢 煨生薑三片 물 두 잔에 넣고 八分이 되도록 달여서 발작하기 두 세 시간 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張介賓: 景岳全書, 경담, 서울, 1999, p. 1097.
144) 大補元煎: 人參 山藥 熟地黃 杜仲 當歸 山茱萸 枸杞 炙甘草 물 두 그릇에 넣어七分이 되도록 달여서 食間에 복용한다.
張介賓: 景岳全書, 경담, 서울, 1999, p. 1067.
145) 楊思澍·張樹生·傅景華: 中醫臨床大全,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91, pp. 61~63.

寒瘧	乍寒乍熱 寒甚熱微 或惡寒戰慄 但寒不熱 甚則神昏不語	芳香化濁 辟穢理氣	輕症·中症 加味不換金正氣散 重症 加味不換金正氣散合蘇合香丸
勞瘧	瘧久不愈 或少勞即發 寒熱時作 倦疲乏力 面色萎黃 形體消瘦 頭目眩暈 食少 自汗 或脇下結成痞塊 扪之可得	補益正氣 調和營衛	輕症 何人飲 中症 四獸飲 重症 大補元煎

또한 瘧疾에 응용하는 藥材에 대하여 『本草綱目』¹⁴⁶⁾에는 暑熱에 柴胡·黃芩·甘草·胡麻·蜀椒·石膏·蚯蚓·烏賊骨 등을, 寒濕에 附子·蒼朮·乾薑·烏梅·桂心·龍骨 등을, 痰食에 常山·半夏·蓬朮·神麴·檳榔·綠礬·白僵蠶 등을, 邪氣에 端午棕尖·蜈蚣·白狗屎 등을, 吐痰에 常山·蜀漆·瓜蒂 등을, 外治에 旱蓮·毛茛菪·馬齒莧·魚腥草 등을 제시하였고, 『東醫寶鑑』¹⁴⁷⁾에는 牛膝·茵陳·葛根·麻黃·知母·半夏·松蘿·蛇蛻·鱉甲·蜈蚣·鼠婦·白葵花·烏梅·虎頭骨·狸糞·狐肉·燕屎·夜明砂·小蒜 19가지의 單方藥物을 제시하였다.

『東醫寶鑑』에 학질이 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截瘧法이 나와 있는데 瘧疾이 오래되면 中氣가 허약해져서 邪氣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므로 치료하기 어려우니 信石과 黃丹을 사용하는데 毒性이 강하므로 경솔하게 쓰지 말아야 한다. 또한 截藥藥을 써서 黃膠같은 물을 吐하게 되면 瘧疾이 저절로 낫는다. 截瘧에 사용하는 處方으로는 截瘧常山飲¹⁴⁸⁾, 截瘧七寶飲¹⁴⁹⁾, 截瘧飲子¹⁵⁰⁾, 人參截瘧飲¹⁵¹⁾ 등이 있다.

146)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pp. 75, 76.
147) 許俊: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3, pp. 524, 525.
148) 截瘧常山飲: 常山 草果 檳榔 知母 烏梅 穿山甲 甘草 各一錢 上搗書 p. 523.
149) 截瘧七寶飲: 常山 陳皮 青皮 檳榔 草果 厚朴 甘草 各一錢 上搗書 p. 523.
150) 截瘧飲子: 常山一錢半 檳榔一錢 丁香五分 烏梅一箇 上搗書 p. 523.
151) 人參截瘧飲: 人參 白朮 白茯苓 當歸 青皮 厚朴 柴

또한 학질의 禁忌法은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하니 발작하는 날에 배부르게 먹으면 病이 더 심해지며, 뜨거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消化되지 않고 痞塊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먹으면 반드시 病이 심해진다. 음식을 절도있게 먹고 바람과 추위에 주의하며 술과 성생활을 삼가야 한다.¹⁵²⁾

『金匱要略·瘧病脈證并治第四』는 『素問·瘧論』과 『素問·刺瘧論』을 바탕으로 瘧疾의 脈證과 治療에 대하여 논술하였는데, 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瘧疾은 惡寒과 發熱이 週期的으로 發作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며, 原文의 첫머리에 “瘧脈自弦”이라 하였듯이 弦脈이 나타난다.

瘧疾을 惡寒과 發熱의 多少에 根據하여 但熱不寒의 瘧瘧, 熱多寒少의 溫瘧, 寒多熱少의 牝瘧과 瘧疾이 오래도록 나지 않으면 痰飲이 脇下에 凝結되어 나타나는 瘧母로 分類하였다.

治法에 있어 『素問·瘧論』에 “病勢가 亢盛하여 졌을 때 刺針하면 반드시 몸을 해치고 病勢가 수그러들 때 刺針하면 아주 잘 치료된다.(方其盛時必毀 因其衰也 事必大昌)”고 하고, 『素問·刺瘧論』에 “瘧疾을 치료할 때는 發作하기 한 食頃 전쯤에 치료해야 하며 그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치료할 時期를 놓치는 것이다.(治瘧先發如食頃 乃可以治過之則失時也)”고 하여 瘧疾이 發作할 때에는 어떠한 治療로도 發作을 멈출 수 없으므로 發作이 끝난 뒤에 治療하고, 發作하기 전에 治療할 것을 強調하였으며, 刺鍼하는 方法만 있고 治方이 없으나, 本篇에는 汗·吐·下·溫·清法 및 飲食調理 등의 方法을 제시하여, 溫瘧은 白虎加桂枝湯으로 清熱解表하고, 牝瘧은 蜀漆散으로 祛痰止瘧하며, 微熱이 있으면 柴胡桂薑湯을, 表邪가 있으면 牡蠣湯을 사용하고, 瘧母는 鱉甲煎丸으로 消瘀化癥

하고 扶正祛邪하였다. 비록 原文에 瘧瘧의 治方이 없으나 病機와 症狀으로 미루어 白虎加人蔘湯과 竹葉石膏湯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瘧疾의 發熱로 津液이 虧損되어 口渴이 된 경우에는 柴胡去半夏加枳實湯을 사용하였다.

參 考 文 獻

1. 張仲景 著,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金匱要略方論, 裕昌德書局, 臺北, 1960.
2. 魏荔澗: 金匱要略方論本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3. 尤怡: 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4.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5. 陳念祖: 金匱要略淺注, 綜合出版社, 台南, 1990
6. 唐宗海: 金匱要略淺注補正, 力行書局有限公司, 臺北, 1994.
7. 曹家達: 金匱要略發微, 志遠書局, 臺北, 2003.
8.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大邱, 1982.
9.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10.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11. 王叔和: 影宋版 脈經, 東洋醫學研究院, 大板, 1981.
12. 孫思邈 著·李景榮 등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13.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5.
14.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서울, 1994.
15. 王肅: 外臺秘要,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16. 王肯堂: 證治準繩,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胡 黃芩 知母 常山 草果 鱉甲各八分 桂枝 甘草各三分 上搗書 p. 523.
152) 上揭書 p. 524.

17. 李廷: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6.
18. 許慎 注, 段玉裁 撰: 說文解字, 大星文化社, 서울, 1992.
19.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20. 喻嘉言: 醫門法律,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21. 張聿: 張氏醫通,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5.
22. 中藥大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7.
23. 許俊: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3.
24. 李仲梓: 醫宗必讀,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25. 吳昆: 醫方考, 醫聖堂, 서울, 1993.
26. 陳無擇: 三因極一病證方論,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9.
27. 鄭東洙: 素問·痞論에 對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1994.
28. 鄭東洙 外: 素問·刺痞論에 對한 研究, 東醫生理學會誌, 14:1, 1996.
29. E. Braunwald 외: Harison's 내과학, 대한내과학회 해리슨내과학 편집위원회, 도서출판 MIP, 서울, 2003.
30. 楊思澍·張樹生·傅景華: 中醫臨床大全,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91.
31.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對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6.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商務印書館, 香港, 1987.
7. 金赫濟·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集文堂, 서울, 1991.
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제편집동의학사전, 까치, 서울, 1990.
9.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87.
10.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增訂 韓醫學大辭典, 정담, 서울, 2001.
11. 蔡仁植·權賢德·邊元九: 漢方醫學用語大辭典, 癸丑文化社, 서울, 1983.

參考辭典

1. 中醫研究院·廣東中醫學院: 中醫名詞述語辭典, 知識出版社, 香港, 年度未詳.
2. 張三祚: 大漢韓辭典, 集文堂, 서울, 2001.
3.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84.
4.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民衆書林, 서울, 1984.
5.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高人民族文化